



# 에스겔 연구사\*

- 역사적 발전의 경과와 최근의 연구를 중심으로 -

임시영(성결대)

## 1. 들어가는 말

1900년 이래로 시작된 에스겔서에 대한 비평적 연구의 역사적 경과와 그것의 반동으로 등장한 연구들을 소개하는 일은 난항을 겪고 있다. 이것은 현재의 일관성 없는 연구들 또는 연구방법들 상호간의 다양한 융합들로부터 발생된 다면적 연구의 상황들에 기인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먼저 에스겔서의 기본문서와 그것의 형성 또는 편집과 관련된 역사 비평의 기본 지식들을 요약적이면서도 최대한 일괄적으로 각 비평들의 발전의 경과에 따라 서술한다. 그러나 핵심적인 연구의 결과물들은 이해를 위해 때로 좀 더 자세히 언급하였다. 이러한 시간순의

---

\* 이 논문은 2014년도 한국구약학회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직선적 개괄은 에스겔서 연구에 있어 제기되었던 비평적 문제들에 대한 보다 쉬운 접근과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900년 이후로 제기된 초기 단계의 문헌비평으로부터 시작해서 문헌(자료)비평적 연구 그리고 편집비평적 연구로 이어져간 연구의 역사적 진행의 경과와 그것의 확장과 반동으로 등장하게 된 급진주의적인 연구의 각 경향들이 개괄된다. 이것은 또한 1990년 이후의 각기 다양한 에스겔서 연구들의 방법론적 근원과 그 후속 관계를 살피는 것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전 작업이기도 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앞선 서술의 도움으로부터 최근의 연구들을 각 연구의 방법론적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다면적인 연구의 상황들과 개별 연구들 상호간의 영향 관계들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외밍(M. Oeming)이 제안한 ‘해석학적 관점에서의 오늘날의 주석 방법론에 따른 도식적 분류’를 또한 수용하고 적용하였다. 따라서 오늘날의 에스겔 연구의 각 경향들은 ‘저자들과 그들의 세계’, ‘문서들과 그것의 세계’, ‘수용자들/독자들과 그들의 세계’, 그리고 ‘실제 사건들과 그것의 세계’라는 틀 안에서 최종적으로 평가되고 분류되었다. 끝으로 본 연구는 현재의 복잡하고 다면적인 연구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연구의 경향과 그 경과와 방향성이 보여주는 것의 도움으로부터 앞으로 예측되는 에스겔서 연구의 방향에 대한 향후 전망과 함께 종결된다.

## 2. 연구의 역사적 경과들에 따른 조망: 문헌비평의 시작으로부터 편집비평 그 이후까지

- 1) 1900년부터 침머리(W. Zimmerli)까지: 문헌비평적 연구의 시작과 성장 그리고 편집비평으로의 확장  
에스겔서에 대한 비평적 연구는 1900년 이전까지 저작권의 문제에

대해 단지 간헐적으로 제기될 뿐<sup>1)</sup> 여전히 통일성 있는 작품으로 인정되다가 20세기에 들어서며 크래츠슈마르(R. Kraetzschmar)의 에스겔 주석서<sup>2)</sup>의 출판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할 수 있다.<sup>3)</sup> 크래츠슈마르는 1인칭 보고와 이방인에 관한 내용에 한정되는 3인칭 보고로 이뤄진 독립적인 두 문서의 존재와<sup>4)</sup> 이 두 문서를 오늘의 형태로 편집해 책의 표면적 통일성을 생성한 편집자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역사적 선지자 에스겔과 에스겔서의 구분을 처음으로 시도했다.<sup>5)</sup> 책 전체의 문학적 통일성을 견지한 크래츠슈마르의 견해는 헤르만(J. Hermann, 1908<sup>6)</sup>)에 의해 수정 확장되었다. 그는 개별 본문들의 통일성 획득을 위해 오히려 문학적 복합성을 주장한다. 문학적 복합성과 개별 본문들로 축소된 통일성의 논의에 따라 에스겔서는 에스겔의 선포들로부터 기인한 통일성 있는 개별 본문들로부터<sup>7)</sup> “점차적으로 생성된 모음집(ein allmählich entstandenes Sammelwerk)”<sup>8)</sup>이 되었다. 이러한 헤르만의 연구는 선지자의 말과 책의 구분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본문의 생성과 편집이 여전히 선지자 자신에게로 돌려진다는 측면에서는<sup>9)</sup> 크래츠슈

- 
- 1) 조휘는 “1900년대 이전에 에스겔서의 저작권과 통일성에 대한 비평적 견해가 전무했던 것은 아니”며, “Oeder(1756), Corodi(1792), Zunz(1832), A. Geiger(1857), Seinecke(1884)” 등을 언급한다(조휘, “에스겔서 연구의 흐름과 최근 동향,” 『신학과 선교』 7권(2003), 85.
  - 2) R. Kraetzschmar, *Das Buch Ezechiel* (HAT 3/3,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00).
  - 3) 이에 반해 C. Kuhl, “Zur Geschichte der Hesekiel-Forschung”, ThR NF 5 (1933), 100; K. -F. Pohlmann, *Das Buch des Propheten Hesekiel(Ezechiel). Kapitel 1-19* (ATD 22/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6), 24; T. A. Rudnig, *Heilig und Profan: Redaktionskritische Studien zu Ez 40-48* (BZAW 287; Berlin: de Gruyter, 2000), 8 등은 에스겔서에 대한 비평적 연구 특히 편집가설적 연구의 진정한 시작을 Herrmann의 Ezechielstudien (BWAT 2; Leipzig: Hinrichs, 1908)의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Herrmann은 분명 Kraetzschmar의 계승자로 봐야한다.
  - 4) R. Kraetzschmar, *윗글*, XIII.
  - 5) Bertholet(A. Bertholet/K.Galling, *Hesekiel* (HAT 1/13; Tübingen: Mohr, 1936)와 Hempel(J. Hempel, *Die althebraische Literatur und ihr hellenistisch-jüdisches Nachleben* (Wildpark-Potsdam: Akad. Verlagsges. Athenaion, 1930)은 Kraetzschmar를 수정된 형태로 계승한다.
  - 6) J. Herrmann, *윗글* (1908); J. Herrmann, *Ezechiel* (KAT 11; Leipzig [u.a.]: Deichert, 1924).
  - 7) J. Herrmann, *윗글* (1908), 62.
  - 8) *윗글*, 12.
  - 9) *윗글*, 62.

마르를 따르면서도, 이후에 계속된 편집적인 개정들과 몇몇의 비에스겔적인 본문들의 존재가 완전히 부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를 둔다. “헤르만으로부터 발생된 선지자 자신이 예언서의 필자이자 보충 기록자였다는 연구의 모델은 그 후에 많은 지지자<sup>10)</sup>를 얻었다.”<sup>11)</sup>

크라츠슈마르와 헤르만의 초기 문헌비평적 연구는 훔셔(G. H Ischer)<sup>12)</sup>를 통해 확장된다. 훔셔의 문헌비평적 연구는 이전의 책 전체의 통일성과 저작에 관한 전통적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던 초기 문헌비평적 연구의 상황을 완전히 뒤집는다.<sup>13)</sup> 훔셔는 먼저 예언적 행위의 성격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역사적 에스겔을 황홀경을 경험한 선지자적 시인으로 그리고 심판선포자로 규정한다.<sup>14)</sup> 그래서 산문과 시문의 구분으로부터, 심판과 구원 선포의 구분으로부터 포로기 이전 선지자의 진

10) “그들 중에 대표적인 학자들로는 Heinisch(P. Heinisch, *Das Buch Ezechiel* (HSAT 8/1; Bonn: Hanstein, 1923)), Cooke(G. A. Cooke,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Ezekiel* (ICC 26; Edinburgh: Clark, 1960)), Fohrer(G. Fohrer/K. Galling, *Ezechiel* (HAT 1/13; Tübingen: Mohr, 1955)), Eichrodt(W. Eichrodt, *Der Prophet Hesekiel. Kapitel 1-18* (ATD 22/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55, 5., unv. Aufl., 1986); W. Eichrodt, *Der Prophet Hesekiel. Kapitel 19-48* (ATD 22/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55, 3., unv. Aufl., 1984)), Zimmerli(W. Zimmerli, *Ezechiel, Teilbad. 1: Ezechiel 1-24* (BK 13/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69, 2., verb., durch e. neues Vorw. u. e. Literaturnachtr. erw. Aufl., 1979); W. Zimmerli, *Ezechiel, Teilbad. 2: Ezechiel 25-48* (BK 13/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69, 2., verb., durch e. neues Vorw. u. e. Literaturnachtr. erw. Aufl., 1979)) 그리고 Lang(B. Lang, *Ezechiel: Der Prophet und das Buch* (EdF 153;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Abt. Verlag], 1981)) 등이 있다”(K.-F. Pohlmann, *Das Buch des Propheten Hesekiel(Ezechiel) Kapitel 20-48*. Mit einem Beitrag von T. A. Rudnig (ATD 22/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1), 24).

11) K.-F. Pohlmann, *윗글* (2001), 24. Herrmann 이후의 연구자들이 입안해서 오늘날까지 수용되고 있는 연구모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에스겔서에서의 중요 본문들은 선지자 에스겔의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이와 함께 2) 개별적 텍스트들의 모음과 보충기록, 부분적인 후기의 저작 그리고 개정(Bearbeitung) 또한 고려한다.

12) G. H Ischer, *Hesekiel, Der Dichter und das Buch: Eine literarkritische Untersuchung* (BZAW 39; Göttingen: Tübingen, 1924).

13) 조취는 Hölischer에 대해서 “체계적인 문서비평적 접근을 사용하여 오경 연구에 새 물결을 일으킨 이가 Wellhausen이고 예언서에서는 이에 견줄 만한 인물이 B. Duhm이라는 에스겔서 연구에서 이들과 유사한 역할을 한 학자가 바로 H Ischer”라고 평가한다(조취, “에스겔서 연구의 흐름과 최근 동향,” 『신학과 선교』 7권 (2003), 87.

14) 비교, G. H Ischer, *윗글*, 5.

정한 선포를 찾는다.<sup>15)</sup> 이로써 운문형태인 단지 170절만이 역사적 선지자 에스겔의 것이고,<sup>16)</sup> 나머지는 기원전 5세기의 포로기적인 편집자에 의해 수정 보완된 위경적인 창작 활동의 결과가 되었다.<sup>17)</sup> 활서에 의해 결국 선지자와 선지자의 책은 완전히 구분되었다. 활서의 문헌비평적 연구는 포러(G. Fohrer)의 양식비평적 연구와 연결된다. 그러나 활서의 주관적 전제와 정확한 기준 제공의 약점(예언자는 시인이다)을<sup>18)</sup> 보완하기 위해 그는 문서의 복잡성에 대한 헤르만의 견해를 자신의 양식비평적 입장에 수용한다.<sup>19)</sup> 이로서 선지자적 본문은 확대, 강화되었고 제사장적 손길에 의한 후기의 종합과 보충기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존되었음을 주장한다.<sup>20)</sup>

크라츠슈마르로부터 시작된 문헌비평적 연구가 문서의 복잡성과 Ipsissima verba의 결정에 집중하는 동안 개별 단락과 책 전체의 통일성의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편집비평적 연구가 뒤이어 발생했다. 침멀리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는 에스겔서 내에서 발견되는 문학적 통일성 및 확장과 개정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선지자 자신의 구전선포로부터 발생된 본래 에스겔의 본문과 그것의 보존, 보충, 확대, 그리고 개

15) B. Duhm과 S. Mowinkel의 각각 이사야서(1892)와 예레미야서(1914)에 관한 문헌(자료)비평적 연구도 동일한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16) Zimmerli, 윗글 (1979 7), 8에 따르면 H Ischer는 단지 144절 만을, 그 반면 Lang은 147절을 에스겔적 인 것으로 남겨둔다(B. Lang, 윗글, 7). H Ischer의 분석에 따르면 순수한 에스겔적인 시문들에 속하는 핵심단락은 겔 15장과 17장 그리고 19장 1-9절 정도이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후속연구들 속에서, 예를 들면 J. Garscha나 K. -F. Pohlmann의 연구 등에서 여전히 의미를 갖는다.

17) G. H Ischer, 윗글, 30-31, 35-42. Irwin 역시 H Ischer와 매우 유사하게 평가한다. Irwin에 따르면 겔 15장 안에 있는 원래적인 비유(1-5절)와 덧붙여진 설명(6-8절)은 서로 구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분 가능성의 발견은 연구에 있어 좋은 출발점이 되었다. 이러한 구분들로부터 Irwin은 단지 251절을 진정한 본문으로 여긴다.

18) G. Fohrer, "Über den Kurzvers," ZAW 66 (1954), 235.

19) P. Schwagmeier, "Untersuchungen zu Textgeschichte und Entstehung des Ezechielbuches in masoretischer und griechischer Überlieferung," Dr. Theol. Disertation (Uni. Zürich, 2004), 17.

20) G. Fohrer/K. Gallig, 윗글, XI. "Fohrer의 이러한 접근은 이후 연구에 미미하게 수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철저한 양식사적 연구의 제안은 직접적으로 F. Fechter와 K.-F. Pohlmann의 연구에 까지 영향을 끼쳤다"(P. Schwagmeier, 윗글, 17).

정에 해당하는 후대삽입 부분에 관여한 “에스겔 학파”<sup>21)</sup>에 의한 주제적 신학적 일관성 및 통일성의 유지를 주장한다.<sup>22)</sup> 이렇게 함으로 에스겔서를 역사적 선지자 에스겔로부터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이어쓰기’ 가설을 통해<sup>23)</sup> 책을 “명확히 계획된 전체”<sup>24)</sup>로서 에스겔 학파의 것으로 돌릴 수 있게 되었고 결국 책의 문학적 통일성과 확장 상이의 모순을 해결 할 수 있었다.

## 2) 침몰리 이후: 보충기록의 수용을 통한 편집비평의 확장과 확대된 통일성 주장

침몰리의 보충기록 모델의 수용 및 확장과 관련해서 먼저 크뤼거(T. Krüger, 1989<sup>25)</sup>)의 연구가 주목된다. 그는 바벨론 골라에 중심을 둔 “오래된 에스겔서” 이론을 제시한다. 6세기의 편집을 통해 이미 정리되었음에도 여전히 역사적 선지자 에스겔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기본 층으로서의 “오래된 에스겔서”는 마카비 시대의 개정과 보충기록을 통해 이스라엘의 심판 열방의 심판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오늘의 형태인 종말론적 3도식으로 구성되었다.<sup>26)</sup> 책의 이러한 묵시문학적 변경과 확장을 크뤼거는 현실화와 보충기록의 결과로 규정한다.<sup>27)</sup> 골라에 방향 정해진 개정과 전체로써의 책의 생성에 대한 관심이라는 측면에서 크

21) W. Zimmerli, *율글* (1979 ㄱ), 104–114.

22) W. Zimmerli, “The Special Form— and Traditio—Historical Character of Ezekiel’s Prophecy,” *VT* 15 (1965), 515–27.

23) 복트(E. Vogt, *Untersuchungen zum Buch Ezechiel* [AnBid 95; Rome: Bilical Inst. Pr., 1981]) 역시 책의 생성에 있어 후기(추가)해석(Nachinterpretation)을 고려한다. 맨 먼저 Vogt는 기본문서를 형성하는 환상적인 본문들과 첨가된 비환상적인 본문들의 구분을 시도한다. 겔 40–48장에 대한 그의 연구 안에서 이 입장은 유지된다. “복트는 그러나 겔 1–39장과 겔 40장 이하의 연결 가능성에 대해 자세한 상론을 하지 않”는 단점을 가진다(T. A. Rudnig, *율글*, 17).

24) W. Zimmerli, *Art. Ezechiel/Ezechielbuch*, *TRE* 10 (1982), 767.

25) T. Krüger, *Geschichtskonzepte im Ezechielbuch* (BZAW 180; Berlin/New York: de Gruyter, 1989).

26) *율글*, 323.

27) *율글*, 470.

뒤거를 계승한 폴만(1992<sup>28</sup>, 1996<sup>29</sup>) 역시 디아스포라에 의한 보충 기록과 보다 후기의 목시문학적 개정에<sup>30</sup> 의한 주제적이고 신학적으로 조절된 기존문서의 점진적 확장을 고려한다. 상징 언어들 안에 있는 가장 오래된 문서인 탄식의 모습들은<sup>31</sup> 이후에 고발로 변경되고, 또한 계속된 증보를 통해 오늘의 형태로 형성되었다.<sup>32</sup> 계속된 증보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sup>33</sup>: 1) 예언과 성취의 도식으로 양분되는 오래된 예언서가 주전 6세기 팔레스타인에서 기초되고 보충기록 되었다. 2) 골라의 종교적이며 정치적인 우선권 요구를 위한 편집과 개정이 주전 5세기 초반에 행해졌다. 3) 골라의 우선권에 반하여 디아스포라의 요구를 대변하는 제도 초안(겔 40-48)의 보충기록이 주전 5세기 후반에 행해졌다. 4) 마지막으로 늦은 시기에 이방 민족에 관한 에스겔 25-32장이 첨가되어 에스겔서를 종말론적 3부 구조의 책으로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편집 비평적 연구의 확장은 진정성 논란에서 벗어나 에스겔서를 신학적이고 사회학적인 관점 아래서 얻어진 결과물들 아래서 다시 전체로 볼 수 있

28) K.-F. Pohlmann, *Ezechielstudien: Zur Redaktionsgeschichte des Buches und zur Frage nach den ltesten Texten* (BZAW 202; Berlin/New York: de Gruyter, 1992).

29) K. -F. Pohlmann, *Das Buch des Propheten Hesekiel[Ezechiel]. Kapitel 1-19*; K.-F. Pohlmann, *Das Buch des Propheten Hesekiel[Ezechiel]. Kapitel 20-48*. Mit einem Beitrag von T. A. Rudnig.

30) K.-F. Pohlmann, *윗글* (1992), 46 이하, 77-87, 120-134; K. -F. Pohlmann, *윗글* (1996), 20 이하, 27 이하; K. -F. Pohlmann, *윗글* (2001), 526.

31) Pohlmann은 본문 중 탄식단락을 가장 오래된 문서로 수용한다. 이러한 경향은 시문을 본문에서 가장 오래된 그리고 근원적인 선지자의 본문으로 보는 Hölscher와 어떤 선지자적인 전승도 산문의 형태로 되어 있지 않을 것을 주장하는 Fohrer의 영향 아래 있는 것으로 보인다. Pohlmann의 성장의 모델은 문학 비평적 분석의 결과이긴 하나 그의 연구의 출발점은 다분히 양식비평적 옷을 입은 것처럼 보인다.

32) Pohlmann의 성장 모델은 Garscha의 연구의 결과물들 속에서도 발견된다. 그리고 또한 Levin의 테제 안에서(예레미야서의 생성의 관한) 이 성장의 모델과의 연결점을 찾을 수 있다. 비교하라 Ch. Levin, *Die Verheißung des neuen Bundes: in ihrem theologiegeschichtlichen Zusammenhang ausgelegt* (FRLANT 137;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5), 153 이하; K.-F. Pohlmann, *Die Ferne Gottes – Studien zum Jeremiabuch: Beiträge zu den Konfessionen\* im Jeremiabuch und ein Versuch zur Frage nach den Anfängen der Jeremiatradition* (BZAW 179; Berlin/New York: de Gruyter, 1989), 113 이하.

33) K.-F. Pohlmann, *윗글* (1996), 27 이하; K.-F. Pohlmann, *윗글* (2001), 531 이하; T. A. Rudnig, *윗글*, 22 이하.

게 만든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본문에 있어 역사적 에스겔과 관련된 근원적인 평가의 포기로부터 보충기록자 또는 편집자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뒤이어 언급할 위경적 연구의 입장과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sup>34)</sup>

에스겔서의 통일성에 대한 침멀리의 이론을 수용하고 확대하는 연구의 경향이 편집비평의 이론의 수용과 확대의 경향에 대한 반동으로 발생했다. 그 처음이 위서(Pseudepigraph)로써의 에스겔서 주장이다.<sup>35)</sup> 전체 책의 문학적 통일성의 인정에 대한 침멀리의 연구결과는 베커(J. Becker, 1982<sup>36)</sup>)에 의해 급진적으로 수용되었다. 전체 책의 통일성의 견지로부터 그는 에스겔서를 주전 5세기의 비에스겔적이고 목시적인 저자의 선지자적 해석으로부터 생성된 위서라 결론 내린다.<sup>37)</sup> 이것으로 에스겔서에서 예언자는 지워졌고, 예언자의 책으로부터 목시적으로 장르의 변경이 발생했다.<sup>38)</sup> 언어적이고 또한 내용적인 통일성과 관련된 여전한 논쟁 속에서 베커는 언어적 기준은 이것을 위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마지막 편집자의 강조를 통해 주장한다.<sup>39)</sup> 그러나 언어적 통일성은 서로 다른 시기로부터도 생성될 수 있다는 반전제로부터 위경적 모델은 또한 스스로 제약을 받는다. 에스겔서 내에 존재하는

34) J. Becker, 138: 위경적 입장은 “편집의 부분을 한계치까지 끌어올린다. 그리고 그 한계점에서 역사적인 선지자에 관한 논의는 완전히 포기되어 진다. 편집은 흡사 완전한 위경을 형성한다.”

35) 1930년 이후 C. C. Torrey의 영향 아래서 널리 퍼뜨려진 그리고 N. Messel, L. E. Browne, A. van den Born 그리고 J. Becker에 의해서 차용되어진 위경적 모델은 언어적인 통일성 안에서 그들의 입장의 기본적인 명제를 인식한다.

36) J. Becker, 137-149.

37) 138 이하. Becker는 에스겔서를 또한 “시험관(Retorte)으로부터 생성된 선지자의 책”으로써 묘사한다. Becker는 다음의 관점들을 위서의 특징으로서 표시 한다: 1) 언어적이고 구성적인 통일성, 2) 서로 꼭 들 어맞는(완전한) 1인칭 보고, 3) 선택 불가능한 멸망의 선포, 4) 내포되어 있는 극적감흥 그리고 5) 삶의 실재적 정황에 대한 부재.

38) 137 이하. 에스겔서 내의 목시적 형태의 본문들: 1) 환상들 그리고 무아경의 보고, 2) 계시의 숨김에 관한 본문, 3) 천사와 관련된 관심 보고들 (그룹들에 관한 1장과 10장, 그들의 형상에 관한 9장; 40장 이하의 인자과 관련된 보고), 4) 결정적이고 또한 부분적으로 이원론적인 역사상(40장 이하의 새로운 시대와 관련해서).

39) 139.



언어적이고 내용적인 비통일성을 평균화하거나 경미한 정도로 평가하는 책의 통일성의 전제로부터 형성된 생성의 시기와 관련된 판단은(L. Zunz,<sup>40)</sup> C. C. Torrey) 그래서 단지 가설로, 결국 위경적 연구모델은 다른 가설위에 세워진 연약한 결과물이 된다.

반면 보수적인 입장의 계승자들은 침멀리의 책의 통일성을 주장하는 입장의 수용과 확장을 통해 에스겔서를 선지자 자신의 작품으로, 더욱이 전반적으로 볼 때 통일적인 구성물로 여긴다.<sup>41)</sup> 보수적 입장의 학자들 중 몇몇은 본문 안에 있는 외부적인 편집단락을 추정하기는 하지만 본질적인 책의 부분들은 여전히 역사적 선지자의 것으로 돌려진다.<sup>42)</sup> 위경적 연구 모델과 유사하게 이들 또한 책의 성장을 부정하는 전제로부터 출발하거나, 그것을 아주 미미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을 통해 스스로의 약점을 드러낸다. 이러한 연구 경향을 대표하는 학자로는 그린베르그(M. Greenberg, 1983<sup>43)</sup>) 외에 하란(M. Haran<sup>44)</sup>) 등이 있다. 이들은 에스겔서를 통일적인 작품으로써 평가한다. 그리고 단독의 저자를 전제한다. 바로 책의 이름의 수여자인 에스겔이 그 저자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전체 에스겔서를 더 이상의 축소 없이 선지자 자신에게로 돌린다.

---

40) L. Zunz, *Die gottesdienstlichen Vorträge der Juden, historisch entwickelt: Ein Beitrag zur Altertumskunde und biblischen Kritik, zur Literatur- und Religionsgeschichte* (Hildesheim: Olms, 1966).

41) Greenberg은 “복수의 저자”에 대한 각각의 판단 기준들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M. Greenberg, “The design themes of Ezekiel’s program of restoration”, *Int* 38 [1984], 208), 에스겔서 안에서 발견되는 잘못된 시대 배열, 구문상의 비일관성 그리고 불일치들은 비진정성의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유효한 기준이 아니라고 평가한다. M. Greenberg, “What are valid criteria for determining inauthentic matter in Ezekiel?”, J. Lust(Hg.), *Ezekiel and his book: Textual and literary criticism and their interrelation* (BETHL 74; Leuven: Univ. Pr. [u.a.], 1986), 123.

42) Greenberg 같은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에스겔서의 편집적 개정을 강력히 거부한다. M. Greenberg, *Ezekiel 1-20: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ncB 22; Garden City/New York: Doubleday, 1983), 27.

43) M. Greenberg, *룻글* (1983 7); M. Greenberg, *Ezekiel 21-37: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ncB 22a; Garden City/New York: Doubleday, 1983).

44) M. Haran, “The law code of Ezekiel 40-48 and its relation to the Priestly school”, *HUCA* 50 (1979), 45-71.

### 3) 요약 및 평가

두 문서 층을 고려하는 크래츠슈마르의 문헌비평적 연구는 후에 베르톨레트(A. Bertholet)와 험펠(J. Hempel)에 의해 계승되었고,<sup>45)</sup> 헤르만의 문학적 복합성에 대한 주장으로 확장되었다. 선지자를 필자이자 보충기록자로 설정하는 이 이론은 보충기록자를 4세기 바벨론의 제사장적 무리로 설정하는 쿡을 통해 확장되었다. 필자와 보충기록자를 구분하는 쿡의 확장된 접근은 본문의 진정성 논의를 발생시켰다. 본문의 진정성 논의로부터 훔서의 자료비평적 연구는 본문 대다수를 비진정한 5세기 위경적 창작의 결과로 평가한다. 이후 훔서의 자료비평적 연구는 포러의 양식비평적 연구와 결합하였다. 그러나 포러는 선지자 자신에 의한 텍스트와 주석을 고려하는 자료의 복합체성 논의를 통해 훔서의 주관주의를 극복하고자 했다. 이후 진정성 논의와 관련된 연구의 해결불능은 개별 문서단락과 책 전체의 통일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편집비평적 시도를 발생시켰다. 침멀리의 가설적 연구는 문서의 확장과 개정을 문서의 통일성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리고 선지자 에스겔을 지위내지 않은 상태에서 에스겔서를 보충기록자의 것으로 만들었다. 침멀리의 보충가설에 따른 편집비평적 연구의 지평은 크뤼거와 폴만에 의해 수용되고 강화되었다. 크뤼거와 폴만은 각각 보충기록을 6세기 골라의 '현실화'에 따른 편집의 결과 또는 5세기 초반 골라와 5세기 후반 디아스포라에 의한 그리고 더 늦은 시기의 첨가에 의한 주제적이고 신학적인 점진적 확장의 결과로 보았다. 이러한 확장 안에서 역사적 예언자에 대한 평가는 더 이상 고려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이전의 위에스겔 모델을 침멀리의 편집비평의 영향아래서 종합한 베커는 단일 저작에 의한 묵시문학으로서의 위에스겔서 모델을 제시했다. 그

---

45) A. Bertholet/K.Galling, *Hesekiel* (HAT 1/13; Tübingen: Mohr, 1936); J. Hempel, *Die althebäische Literatur und ihr hellenistisch-jüdisches Nachleben* (Wildpark-Potsdam: Akad. Verlagsges. Athenaion, 1930).

리나 이 연구모델은 역사적 선지자에 관한 논의 없이 편집의 부분을 한계치 까지 끌어올린 편집비평적 연구의 결과물과 다르지 않음을 보여 줄 뿐이다.<sup>46)</sup>

편집비평적 연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사비평적 연구는 결국 본문을 파편화된 문서들의 종합으로 간주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을 지나며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본문의 유기적 구조와 통일된 신학의 관찰에 대한 요구는 본문을 조각과 단편들로 파편화시켰던 역사비평의 가설들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결국 해석학적 한계 상황을 탈피하고자 하는 학문적 반동으로 본문 또는 책 전체를 신학적, 문학적, 정경적 통일체로 수용함을 통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최종본문을 그 자체로 취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등장시켰다.

### 3. 최근의 연구 동향: 1990년 이후 연구들의 해석학적 입장에 따른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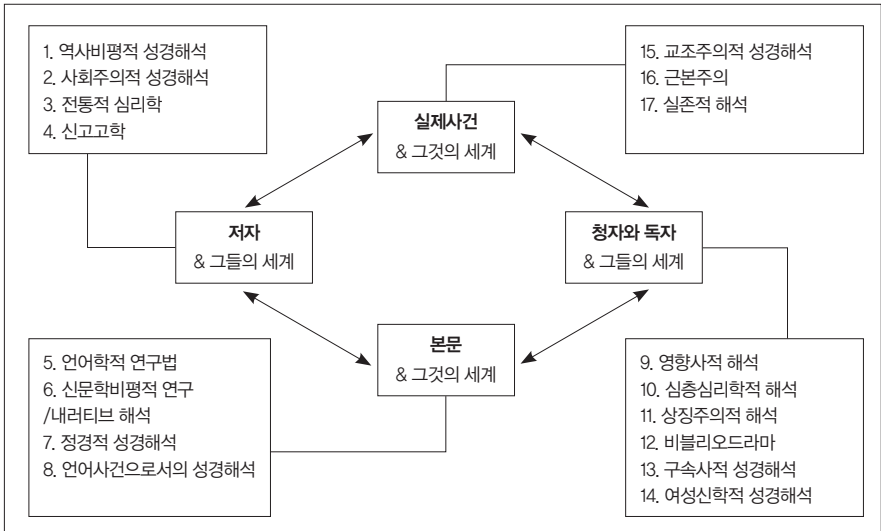
#### 1) 연구의 카테고리 작업을 위한 전제

앞선 단락에서 우리는 에스겔서 연구의 역사적 발전 단계에 따라 역사비평적 접근의 일반적 흐름이 에스겔서 연구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추적했다. 이것은 이제 다룰 최근의 에스겔서 연구들의 좌표 설정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연구들의 다면적 특성은 연구의 발전의 단계에 따른 직선적 좌표 값만으로는 연구들을 분류하는 것에 어려움을 발생시킨다.<sup>47)</sup> 그래서 이전의 역사비평적 연구의 결과물들이 본문에 대한 해석학적 불능상태를 발생시켰다는 판단으로부터 착안하여, 또한

46) J. Becker, 위글, 138.

47) “예를 들면, Howie와 Pfiffer는 일면으로는 통일성을 인정하고 다른 한 면에서는 후대의 편집층을 주장한다. 또한 포로기의 에스겔 저작과 포로후기의 편집적 과정을 함께 수용”하는 복합적 연구도 있다(조휘, “에스겔 연구의 흐름과 최근 동향”, 84).

그 반동으로 현재의 연구들이 본문에 대한 해석적 접근을 고려 및 유지하려 노력한다는 측면으로부터 외밍이 제시한 해석학적 방법론에 따른 분류 방법의 차용을 통해 현재의 연구의 경향들을 카테고리화 할 것이다. 외밍은 최근의 연구들을 열일곱 가지 해석적 입장에 따라 분류했고, 이것을 또한 저자, 본문, 독자, 그리고 실제사건으로 이뤄진 해석학적 콰드랭글(quadrangle) 안으로 통합했다.



〈표 1〉<sup>48)</sup>

위의 도표의 사용은 현재의 다면적인 에스겔 연구의 경향들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도울 것이다. 에스겔서 이해의 역사적 경향은 실제사건 → 청자와 독자 → 본문 → 저자 그리고 다시 저자 → 본문 → 청자와 독자의 흐름을 보인다. 앞선 흐름이 이전 단계와의 분명한 결별로 이뤄졌다면 이후 흐름은 앞선 단계와의 연속성에 놓인다는 특징을 띤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해가 입체적이어야 하는 전제가 된다. 1990년

48) M. Oeming, *Biblische Hermeneutik* (Darmsadt: WBG, 2007), 176.

이후의 연구는 그래서 이후 흐름의 순서에 따라 다음 단계와의 상호 연관성 속에서 언급될 것이다.

## 2) 저자와 그들의 세계

### (1) 역사비평의 여전한 수용과 편집된 최종 본문의 고려

본문의 파편화에 대한 반동과 침멀리의 영향 아래서 역사비평적 연구는 책 전체의 통일성 인식이라는 발전된 경향성 속에서 여전히 수용되고 더욱 확장되었다. 침멀리와 동시대에 이미 베버스(J. E. Wevers 1969<sup>49)</sup>)는 편집비평적 연구의 틀 안에서 편집된 최종 본문에 집중해야 함을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에스겔서는 창조적인 작업을 수행한 편집자<sup>50)</sup>로부터 생성된 최종형태의 본문이기 때문에 선지자적 기본층과 확장층의 구분은 불가능하다. 책의 생성에 있어 구전전승으로부터 시작해서 문서화 단계와 편집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고려하는 베버스의 입장은 편집된 형태의 최종 본문의 편집 원리와 편집자의 의도에 집중하는 것으로부터<sup>51)</sup> 전체로서의 책의 읽기는 성공했지만 그러나 역사적 선지자는 결과적으로 편집자의 글 속에서 지워졌다. 이러한 경향은 루드니히(T. A. Rudnig 2000<sup>52)</sup>)의 에스겔 40-48장의 연구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폴만의 제자인 루드니히는 먼저 에스겔 40-48장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문학층들을 정리하는 것과 개별적인 문학층들의 전

49) J. E. Wevers, *Ezekiel* (Grand Rapids: Eerdmans, 1969).

50) 전승의 수집과 보전 그리고 전달과 관련해 Wevers는 주제적이고 창조적 역할을 감당한 단수의 편집자를 고려하는 것에서 Zimmerli의 '에스겔 학파'이론과는 분리된다(J. E. Wevers, 위글, 29). 신학적이고 정치적인 갈등상황으로부터 발생한 편집자의 창조적 작업을 고려하고, 이것으로부터 발생한 최종형태 본문에 관심을 두는 연구는 또한 Clements(R. E. Clements, *Old Testament Prophecy: From Oracle to Can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6))에 의해 이루어졌다.

51) J. E. Wevers, *Ezekiel*, 22-30.

52) T. A. Rudnig, *Heilig und Profan: Redaktionskritische Studien zu Ez 40-48*. Rudnig는 Pohlmann의 견해의 수용으로부터 확장으로 자신의 연구를 진행했다. 이 두 사람은 Eichrodt에 이은 ATD의 에스겔 주석의 저술도 함께했다. 1-39장까지는 Pohlmann이 40-48장까지는 Rudnig가 담당했다.

승자 집단을 명확히 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루드니히에 따르면 에스겔 40-48장의 제도초안은<sup>53)</sup>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논의경과들의 결과로써<sup>54)</sup> 포로기 후기의 이스라엘 안에서 생성되었다. 그는 연구를 통해서 다른 몇몇의 제도(설계)들 안에는 매우 상이한 전승집단의 요구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구들은 다른 집단에 반한 대응 안에서 문제시 되었고, 부분적으로는 선택적인 개념들을 통해서 평준화되었음을 주장한다. 이러한 관찰들로부터 에스겔 40-48장의 편집의 경과는 다음과 같이 상세히 설명된다: 1) 골라 입장에 선 편집(주전 5세기 초): 이 편집은 에스겔 40-48장의 기본문서를 형성한다. 골라 입장의 본문들이 전 단계의 본문의 존재는 물론 인정된다. 그러나 골라 입장의 본문 이전의 본문들을 골라 입장의 본문들로부터 분리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편집은 이미 존재하는 예언자의 책을 골라 입장의 본문들로 그 자신의 의도 안에서 개정하였기 때문이고, 또한 그 프로그램을 그들의 요구에 병합시켰기 때문이다. 2) 디아스포라 입장에 선 편집(주전 5세기 말): 이 편집은 골라 중심적 편집의 특징의 파괴, 제한 그리고 재해석과 함께 등장하였다. 3) 제사장적인 전승집단(주전 4세기). 디아스포라에 방향 정해진 편집이 골라에 방향 정해진 편집을 막아서 있는 동안에 제사장적인 전승집단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통해 매우 새로운 질문의 장을 열었다: (1) 성전 건설의 보고에 관한 상세한 보충 기록, (2) 성전 설비에 대한 묘사, (3) 사독계열과 레위계열의 분리, (4) 죄에 관한 신학적 관계의 얽힘, (5) 땅의 수여. 이상으로부터 루드니히는 에스겔 40-48장이 6세기 후반에서 3세기 초반 사이에(후기 포로기로부터 헬레니즘까지) 활발한 성장을 경험했다고 주장한다. 에스겔 40-48장의

53) '제도초안'은 독일어 'Verfassungsentwurf'의 번역으로서 이 단어는 Gese의 전승사적 연구(H. Gese, Der Verfassungsentwurf des Ezechiel(Kap.40-48): Traditionsgeschichtlich Untersucht(Tübingen: J. C. B. Mohr, 1957)에서 사용된 이래로 에스겔 40-48을 지칭하는 학문적 용어가 되었다.

54) 이점에서 Rünig는 Wevers(J. E. Wevers, 윗글, 29) 그리고 Clements(R. E. Clements, 윗글, 167)와 유사한 견해를 보인다.

문헌비평과 편집비평의 결과를 종교사와 사회사 안에서 새롭게 평가한 루드니히는 제도 초안을 포로후기의 이스라엘 안에서의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논쟁의 경과로써 파악한다. 이러한 평가로부터 에스겔 40-48장은 적절히 에스겔 1-39장에 연결되고, 전체로써의 에스겔서 읽기는 가능하게 된다.<sup>55)</sup> 그러나 이러한 연결 읽기는 베버스의 경우와 같이 내용적인 그리고 언어적인 통일성과 통일적인 저작자 또는 저작 그룹들을 부차적이거나 소위 후기 첨가적인 본문들의 연구에 있어 더 이상 고려하지 않는 위험을 포함한다. 단지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논쟁의 경과에 따른 결과로써 생성된 후기개정으로써의 에스겔 40-48장은 오히려 1-39장으로부터의 분리를 그리고 동일한 관점에 따라 에스겔 40-48장을 위경적 제2에스겔서로 간주되게 만들 수도 있다. 만약 역사적 에스겔과 관련해서 근원적인 평가가 포기되어 진다면,<sup>56)</sup> 이 입장은 결국 위경적 입장과 같아 보인다. 왜냐하면 이 두 견해의 입장은 아주 강한 편집의 역할을 강조하기 때문이다.<sup>57)</sup>

이에 반해 책의 생성에 있어 특히 에스겔 40-48장 안에서 역사적 선지자를 여전히 고려하는 입장이 에바흐(J. Ebach), 포크트(E. Vogt),

55) 에스겔 40-48장의 신학적, 주제적 그리고 문학 구조적 관찰로부터 책 전체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Allen(Leslie C. Allen, Ezekiel 20-48 (WBC 29; Dallas, TX: Word Books, 1990)), Blenkinsopp(J. Blenkinsopp, Ezekiel (IBC;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0), 특히 193), McKeating(H. McKeating, Ezekiel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의 연구에서도 발견된다. 특히 McKeating은 40-48장의 성전의 중요성의 강조로부터 40-48장과 1-39장이 어떻게 주제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잘 논증했다(H. McKeating, *위글*, 89, 102-103). 반면에 Tuell은 40-48장의 통일성을 인정하면서도(Steven Shawn Tuell, *The Law of the Temple in Ezekiel 40-48* (HSM 49; Atlanta: Scholars Press, 1992), 13) 1-39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이것은 Gese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한 Patton과 같이 편집비평적 연구를 통해 겔 40-48장의 통일성 자체를 부인하는 경향도 여전히 존재한다(Corrine L. Patton, "Ezekiel's Blueprint for the Temple of Jerusalem", Ph. D. Dissertation (Yale University, 1991)).

56) T. A. Rudnig, *위글*, 21. 또한 역사적 선지자로부터 겔 40-48장을 분리시키는 것에 동의하는 학자들은 G. Hölscher, V. Herntlich, I. G. Matthews, W. A. Irwin 등이 있다. 특히 Hölscher는 40-48장의 어떤 하나의 본문도 에스겔의 것으로 돌려질 수 없다고 본다.

57) J. Becker, *위글*, 138. 위경적 입장은 "편집의 부분을 한계치까지 끌어올린다. 그리고 그 한계점에서 역사적인 선지자에 관한 논의는 완전히 포기되어 진다. 편집은 흡사 완전한 위경을 형성한다."

튜엘(S. S. Tuell) 등에서 보여진다. 에바흐(1972<sup>58)</sup>)는 상당한 양의 제도 초안 본문이 포로기에 생성되었음을 고려함에도 불구하고 기본문서는 여전히 선지자에게 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에바흐의 제도초안의 생성과 관련하여<sup>59)</sup> 1) 에스겔의 성전묘사의 단순화(양식화)(40:1-37; 40:47-41:4),<sup>60)</sup> 2) 환상적인 요소들을 통한 확장(43:1-2; 44:1-3; 48:1-2), 3) 에스겔 47장 1-12절 이후에 땅의 분배 계획의 편입(47:13-48:29), 4) 제도와 포로기 시기에 오래된 자료의 사용을 통해서 작성되어진 공적업무를 다루는 단락의 후기첨가, 5) “성전-제사장-나쉬의 땅”이라는 동심원적 배열의 원리에 따른 전체 초안의 형성. 이 형성은 44장 4절-46장 18절의 저자에 의해 실행되어졌던 것과 같다, 그리고 6) 46장 19-24절과 48장 30-35절의 늦은 후기첨가들의 6단계를 제시한다. 이것으로 이미 존재했던 구전전승들의 수집의 경과는 본문의 편집적인 확장으로써 이해되었고, 본문의 외관상의 불일치는 문학적인 층들에 의한 것으로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계제와 같이), 오히려 편집의 구상에 의한 것이 되었다.<sup>61)</sup> 포크트(1981<sup>62)</sup>) 역시 책의 생성에 있어 후기(추가)해석(Nachinterpretation)을 고려함으로 역사적 선지자와의 연결을 유지한다. 맨 먼저 포크트는 기본문서를 형성하는 환상적인 본문들과 첨가된 비환상적인 본문들의 구분을 시도한다. 에스겔 40-48장에 대한 그의 연구 안에서 이 입장은 유지된다. 즉 에스겔 40장 1절 이하; 43장 4-7a절 또한 47장 1-12절은 황홀경이고 40-48장의 기본문서가 된다.<sup>63)</sup> 이러한 기본문서는 포로기의 마지막 까지 다음과 같이 확장

58) J. H. Ebach, "Kritik und Utopie: Untersuchung zum Verh. ltnis von Volk und Herrscher im Verfassungsentwurf des Ezechiel (Kap. 40-48)", D. theol. Dissertation (Hamburg Universit t, 1972).

59) 윗글, 245 이하.

60) Ebach는 여기서 명백히 성전묘사의 핵심부분의 전승의 역사를 전제하고 있다.

61) 편집적 구상이라는 것은 Zimmerli의 "후기해석(Nachinterpretation)"에 관한 논의와 상당히 유사하다.

62) E. Vogt, *Untersuchungen zum Buch Ezechiel* (AnBid 95; Rome: Bilical Inst. Pr., 1981).

63) 여기서 Vogt의 편집비평적 연구가 양식비평적 연구의 전제로부터 출발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되었다.<sup>64)</sup> 1) 에스겔 40-42장에 있는 성전 묘사의 점진적이고 연속적인 증보, 2) 에스겔 44-46장의 법률 모음집,<sup>65)</sup> 3) 에스겔 47장 이하의 거룩한 땅과 거룩한 도시에 관한 부분. 이러한 확장들은 추가해석을 통해 발생했다.<sup>66)</sup> “포크트는 그러나 에스겔 1-39장과 40-48장의 연결 가능성에 대해 자세한 상론을 하지 않았다.”<sup>67)</sup> 또한 튜엘(1992<sup>68)</sup>)은 환상보고를 선지자적인 순수한 본문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을 통해 제도초안의 생성과 관계된 두 문서층 모델을 제안하였다. 즉 포로기 초기에 작성된 환상적인 단락을 구성하는 에스겔적인 기본 문서층과<sup>69)</sup> 탁월하고, 계획적으로 완성되어진 첨가와 편집층의 고려이다. 튜엘은 그러나 포크트와 마찬가지로 에스겔 40-48장과 1-39장의 관계에 관해서는 의견을 말하지 않는다.

이상의 언급은 비평적 연구가 본문내의 진정한 선지자의 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원래적 선지자의 말이 어떻게 오늘의 본문으로 형성되었는가라는 편집적 질문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왜 이러한 편집 즉 후기 개정이 발생하였는가라는 편집의도와 원리에 대한 질문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이것을 위해 본문은 먼저 해체되었고 다시 수집되었다. 또한 본문의 형성에 관련해서 저자에 대한 강조와 편집자에 대한 강조로 연구의 경향은 서로 갈리었다. 이상의 연구는 부분적 본문의 통일성을 확보하거나 책을 다시 전체로써 읽을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는 것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그러나 책 전체를 고려하지 않는 부분적 통일성의 인정은 결국 본문을 파편화시킨 이전 연구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면에서 그리고 책을 전체로 읽기위해 역사적 선지자 에스겔을 본

64) E. Vogt, 윗글, 155, 162.

65) 법률모음집은 매우 오랜 기간의 편집의 여과 과정을 통해 생성되었다. 비교하라, E. Vogt, 윗글, 161-164.

66) E. Vogt, 윗글, 134 이하, 162.

67) T. A. Rudnig, 윗글, 17.

68) S. S. Tuell, *The law of the temple in Ezekiel 40-48* (HSM 49; Atlanta: Scholars Pr., 1992).

69) 40:1-43:7a; 44:1 이하; 47:1-12; 48:30-35.

문에서 지워버렸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 (2) 역사비평의 수용과 함께 총체적인 읽기의 시도

앞선 연구들이 역사비평적 연구 결과물들을 통한 편집된 최종 본문을 고려했다면, 최종 형태의 본문 읽기를 함에 있어 편집적 흔적을 고려하는 유사하지만 상당히 다른 연구의 입장이 등장했다. 두과이드(Iain M. Duguid 1994<sup>70)</sup>, 1999<sup>71)</sup>)는 에스겔서가 “현재의 형태 그대로 실질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sup>72)</sup>는 확증으로부터 현재의 본문을 본래의 신탁과 보충 및 편집으로 구분하는 것의 무효성과 불가능성을 주장한다. 현재의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라는 신학적 주제아래 인간의 타락과 임박한 심판이라는 부제를 에스겔의 소명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 회복의 예언이라는 구성으로 신학적 주제에 따라 통일성 있게 형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과이드는 에스겔서의 최종 형태의 본문 안에서 편집적 흔적을 여전히 고려한다. 물론 그렇다고 원저자와 후대 편집자의 간격 및 다량의 후대 삽입을 상정하는 것은 아니다.<sup>73)</sup> 이러한 입장은 통시적이고 공시적인 연구의 방법론을 함께 고려하는 연구의 경향들 속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조이스(P. Joyce)는 침멸리와 불록의 수용으로부터 급진적인 문헌비평적 연구와 총체적 읽기의 중간 길을 찾고자 노력했다.<sup>74)</sup> 총체적 읽기에 대한 강조는 그의 연구사 논문에서도 뚜렷이 보인다.<sup>75)</sup> 논문에서 조이스

70) I. M. Duguid, *Ezekiel and the Leaders of Israel* (VTSup. 56; E. J. Brill: Leiden, 1994).

71) I. M. Duguid, *Ezekiel*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9).

72) I. M. Duguid, *읽기* (1994), 142.

73) I. M. Duguid, *읽기* (1999), 23-26, 45.

74) P. M. Joyce, *Ezekiel: A Commentary* (Old Testament Studies 482; London: T & T Clark, Library of Hebrew Bible, 2008), vii.

75) P. M. Joyce, *Divine Initiative and Human Response in Ezekiel* (JSOTSup. 51; Sheffield: JSOT, 1989).

는 에스겔서 연구의 현재의 동향을 책의 형성에 관한 관심과 함께 통일성을 편집자의 손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는 경향과, 통일성과 관련하여 형성의 과정에 대한 고려 없이 최종형태의 본문에만 관심을 두는 경향으로 분류한다. 이는 조이스가 가진 통일성과 관련하여 최종형태의 본문에 대한 공시적 연구의 특성을 강조하는 그의 관심을 반영한다. 그러나 통시적이고 공시적인 연구의 방법의 혼합에 있어 정경 안에서의 수용사적 관점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조이스는 두과이드와 달리 문헌비평적이고 편집비평적인 결정으로 강하게 회귀하는 경향을 띤다.<sup>76)</sup> 조이스의 통시적 연구 중심의 공시적 연구는 자우어(M. Saur)의 연구에서 좀 더 발전적인 경향을 보인다.<sup>77)</sup> 본문비평적이고 양식비평적인 이슈를 다룸에 있어 자우어는 최종 본문의 문학적 형태를 고려하며, 또한 에스겔 28장 11-29과 창세기 2-3장 그리고 에스겔 28장 13절과 출애굽기 28장 17-20 그리고 39장 10-13절의 성경 내 본문의 상호 비교를 통해 공시적이고 통시적인 연구방법의 혼합을 시도하였다. 제들마이어(F. Sedlmeier)는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가 ‘통시성으로부터 반영된 공시성’(diachron reflektierte Synchronie)적 연구를 하였다.<sup>78)</sup> 그는 자신의 통합적 연구를 통해 에스겔서를 포로지의 문학으로 그리고 선지자 에스겔을 포로지에 있었던 역사적 인물로 설명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해석학적 견지에서 바벨론의 유배를 해석학의 열쇠로 상징하고 계속된 후기 첨가들을 현실화의 문제로 받아들였다.

76) Joyce의 이러한 경향은 그의 제자인 C. A. Strine, *Sworn Enemies. The Divine Oath, the Book of Ezekiel, and the Polemics of Ezekiel* (BZAW 436; Berlin/New York, NY: Walter de Gruyter 2013)의 고대근동의 세계를 고려하고, 전형구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에 관한 그의 연구에서 수용, 확장되었다.

77) M. Saur, *Der Tyrozyklus des Ezechielbuches* (BZAW 386; Berlin: W. de Gruyter, 2008).

78) F. Sedlmeier, *Das Buch Ezechiel*, Kapitel 25-48 (NSKAT 21/2; Stuttgart: Katholisches Bibelwerk, 2013).

여기서 다시 콘켈(M. Konkel 2001<sup>79)</sup>)과 임시영(2010<sup>80)</sup>)의 연구가 비교될 수 있다. 먼저 콘켈은 자신의 에스겔 40-48장에 관한 연구에서 ‘이어쓰기 모델’의 수용과 함께 공시적이고 통시적인 연구의 방법을 결합한다. 그의 연구는 각각의 본문 단락의 상세한 본문비평으로 시작해서 공시적인 분석을 제공하고 이것을 다시 통시적인 관찰과 연결시킨다. 이러한 작업은 “in dubio pro unitate”(통일성을 위한 의심)<sup>81)</sup>이라는 자신의 전제로부터 수행된다. 그리고 각 본문 단락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 최종적으로 편집사적 연구를 시도한다. 그러나 최종 형태 본문에 대한 편집사적 연구의 의견일치의 불가능함을 근거로 전체 에스겔 본문으로의 연결은 시도하지 않는다.<sup>82)</sup> 결론적으로 콘켈은 공시적이고 통시적인 연구의 결과로부터 에스겔 40-48장을 이스라엘 종교사의 증서로서 읽는 것에 성공한다.

이에 반해 후기 확장과 첨가의 문제를 후기해석과 현실화의 결정으로부터(제들마이어) 이스라엘 종교사로 확장하는 콘켈과 달리 임시영은 책의 생성에 있어 ‘이어쓰기’라는 동일한 전제를 수용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결론을 도출한다.<sup>83)</sup> 그는 기본 문서에 대한 보완과 보충을 신학적 컨셉트의 확장과 변경으로 설정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확장과 변경을 여전히 본문의 기본 노선의 범위 안에서 발견한다(신학적 통일성의 유지).<sup>84)</sup> 이는 콘켈의 연구에 있어 역사적 선지자가 지위질 위협에 반하여, 역사적 선지자의 자리를 분명히 하는 것을 통해 최종본문을 수

79) M. Konkel, *Architektonik des Heiligen. Studien zur zweiten Templevision Ezechiels(Ez 40-48)* (BBB 129; Berlin: Philo, 2001).

80) Si-Young Leem, “Die Vision von neuen Israel: Literarische Struktur, Kompositionsgeschichte und theologische Bedeutung von Ez 47f..” Dr. Theol. Dissertation (Heidelberg Univ., 2010).

81) M. Konkel, *뫓글*, 6.

82) *뫓글*, 3-7.

83) 임시영, “에스겔서 종결부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회복의 희망: 에스겔 47장 13절 48장 29절의 신학적인 함의”, 『구약논단』18/2 (2012), 58-85.

84) 임시영, “에스겔 47:13-48:29의 문학적 통일성으로 본 형성사 연구”, 『C & C』 7권 1호 (2013), 184.

용자 또는 편집자의 것에서 여전히 저자의 것으로 두려는 시도이다. 이것을 위해 먼저 에스겔 47장 13절-48장 29절의 상세한 문학구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 이 연구는 본문의 기본층과 확장층을 밝히는 편집 비평적 연구의 바탕을 제공한다. 문학구조의 분석으로부터 발견되는 상이한 문서층으로부터 최종 본문의 형성과정을 추적하고, 그 형성이 기본문서의 신학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문서의 신학적 노선의 범위 안에서 수정하고 확장하고 있음을 편집을 통해 발생하는 최종 본문의 더 완결적인 문학구조의 확인을 통해 이끌어 낸다. 그러나 이 연구의 독특성은 에스겔 47장 13절의 편집비평적 결론을 에스겔서 전체로 확장하는 것에 있다.<sup>85)</sup> 기본문서와 편집 사이의 작은 간극과 적은 양의 편집에 대한 이해로부터 에스겔서 전체의 총체적 읽기가 시도된다. 에스겔서를 통합하는 문학구조의 발견과 그 문학구조가 지지하는 신학으로부터 에스겔서는 ‘처음부터 계획된 전체’로써 읽혀져야 함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이와 같이 공시적인 그리고 통시적인 연구 방법의 통합에 있어 그 주도권이 저자와 본문 사이 어디쯤 놓이느냐의 문제는 여전히 상당한 논쟁을 열어둔다. 또한 이러한 시도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통시적인 연구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공시성으로 말미암아 공시적이고 통시적인 연구의 혼합은 “서로 맞지 않는 공시적인 분석들을 섞는 것과 같으므로... 혼합적인 태도가 주는 희망은 거짓 희망에 속할 것”이라는 주장이다.<sup>86)</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평적 연구가 시작된 이후에도 계속되는 총체적 읽기에 대한 제안은 연구의 시계추(중심축)를 저자로부터 본문으로 흔들리게 만들고 있다.

85) Si-Young Leem, "Die Vision von neuen Israel: Literarische Struktur, Kompositionsgeschichte und theologische Bedeutung von Ez 47f.", 279-301.

86) 송제근, 「사내산 언약과 모압언약: 출애굽기 19-24장과 신명기 5-28장 연구」(서울: 솔로몬, 1992), 27. 송제근은 이러한 예로 Dozeman의 오경연구를 들고 있다(참고, 윗글, 27-28).

### (3) 책의 생성의 문제를 다루는 기타 시도들

제2이사야서와 에스겔과의 관계를 이사야서의 입장에서 연구한 에 아킨(J. K. Eakin)과 발트자르(D. Baltzer)의 연구 이래로<sup>87)</sup> 책의 생성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에스겔서와 구약 내 다른 본문들과의 연구는 계속 되어 왔다. P문서와의 연관성에 대한 최근 연구로는 나단(P. D. Natan 2005<sup>88)</sup>)과 하란(M. Haran 2008<sup>89)</sup>)이 있다. 나단은 침멸리의 수용과 편집비평의 활용으로부터 에스겔서와 P문서와의 연관성을 다루며, 하란은 에스겔 자신이 제사장이라는 전제로부터 에스겔 40-48장에 관한 연구에서 P 문서를 토대로 한 본문의 관련성 문제를 다루었다. 그러나 본문에서 발견되는 P문서와의 차이는 설명되어야 했다. 그는 이것을 위해 제사장학파라는 넓은 틀 안에서 그리고 P문서에 대한 에스겔의 무지로부터 이것을 해결하고 그래서 에스겔서가 제사장적인 학파에서 독특한 입지를 획득하게 되었음을 주장한다.<sup>90)</sup> 이외에도 출애굽기와 에스겔서를 신학적 주제로 연결하고 더불어 모세와 에스겔의 비교를 시도한 아이데스트롬(Rebecca G. S. Idestrom 2009<sup>91)</sup>)의 연구와 양식비평적 기본 전제로부터 레위기와의 연결을 시도한 벤틀즈(T. J. Betts 2006<sup>92)</sup>)의 연구가 눈에 띈다. 이 두 연구는 역사적 선지자 에스겔의 기능론적 접근으로 특히 벤틀즈의 연구에 있어 에스겔의 선지자적 역할과 제사장적 역할의 구분에 따른 에스겔서와 레위기와의 연관성 확인은 흥미롭

87) J. K. Eakin, "Ezekiel Influence on the Exile Isaiah," Ph. D. Dissertation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1970) 그리고 D. Baltzer, *Ezekiel und Deuterocesaja: Ber hrung in der Heilservartung der beiden grossen Exilspropheten* (Berlin: Walter de Gruyter, 1971). Eakin은 신학적 주제에 대한 주목으로부터 에스겔에 대한 제2이사야의 수평적 의존관계를 밝혔다. 반면 Baltzer는 Eakin보다 진일보하여 제2이사야가 에스겔과는 다른 전승으로부터 기인함에도 불구하고 의존관계에 있음을 주장했다.

88) P. D. Natan, "The Prophetic Objection in Ezekiel in IV 14 and Its Relation to Ezekiel's Call", VT 55/1 (2005), 75-88.

89) M. Haran, "Ezekiel, P, and the Priestly School", VT 58/2 (2008), 211-218.

90) 윗글, 218.

91) R. G. S. Idestrom, "Echoes of the Book of Exodus in Ezekiel", JSOT 33/4 (2009), 489-510.

92) T. J. Betts, *Ezekiel the Priest: A Custodian of Tora* (New York: Peter Lang 2005).

다. 에스겔의 제사장적 역할의 우선성은 그를 토라의 교육자로 설정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오경 특히 레위기와 에스겔의 연관성을 탐침한다. 이에 비해 조금 더 전통적인 입장에서 레위기와 에스겔의 연관성을 언급하는 연구가 있다. 스프링클(P. Sprinkle 2007<sup>93</sup>)은 두 문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한 비교연구를 통해 레위기가 에스겔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결론 내린다. 레위기와 에스겔의 연결의 출발점을 에스겔의 제사장 직임에 두고, 두 문서의 문학구조와 의미구조 분석을 통해서 레위기에 대한 에스겔서의 의존관계를 설명한다. 특히 레위기 18장 5절이 에스겔 36-37장의 성취를 위한 언약적 명령의 조건이 된다는 것에서 두 문서의 관계를 명확히 한다.<sup>94</sup> 곧 레위기의 조건적 요소를 통한 언약은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언약의 성취로 확장된 것이다. 이것은 레위기와 에스겔의 관계설정에 단초가 된다.

생성의 문제와 상관없이 구약내의 본문들 특히 에스겔서와 다른 예언서들과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이학재(2005<sup>95</sup>)는 에스겔과 예레미야 본문의 상호연관성을 비교연구 했다. 홀라데이(W. Holladay 2001<sup>96</sup>)와의 연결로부터 그는 두 문서의 기록연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포로기의 한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었다. 회복이라는 동일한 신학적 주제아래서 예레미야는 새 언약의 틀 안에서의 회복을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의 부어주심을 통한 회복을 꿈꿨다. 즉 두 선지자는 동일한 신학적 주제아래 한 사람은

93) P. Sprinkle, "Law and Life: Leviticus 18,5 in the Literary Framework of Ezekiel", JSOT 31/3 (2007), 275-293.

94) 윗글, 275.

95) 이학재, "예레미야 31:31-34과 에스겔 36:24-28의 상호 본문성", 『개신논집』5집 (2005), 49-69. 이학재의 다른 연구로는 이학재, 『에스겔 어떻게 읽을 것인가?』(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2)가 있다. 히브리어 원본 강해를 중심으로 하는 본 주석서는 Block의 주석의 도움과 함께 문예적 접근 방법의 사용을 통해 본문과 저자 중심의 연구를 진행한다.

96) W. L. Holladay, "Had Ezekiel Known Jeremiah Personally?", CBQ 63/1 (2001), 31-34; Holladay는 에스겔과 예레미야의 관계성에 집중한다. 두 선지자의 개인적 친분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서로의 메시지에 대한 상호의존성을 주장한다.

말씀을 통한 회복을 강조하고(예레미야),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통한 회복을 강조하는 것으로(에스겔) 연결된다. 이러한 연구는 에스겔서의 신학적 배경과 성장을 추적하는 것에 도움을 준다. 이외에 학개와 에스겔 그리고 요엘, 스가랴와 에스겔에 관한 본문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연구도 최근에 나왔다.<sup>97)</sup>

이와 같이 에스겔서와 구약 내의 다른 본문과의 상호연관성 연구에서도 역사비평적 입장을 고려하고 책 전체의 생성에 관한 관심으로부터 진행되는 연구와(저자와 본문 사이), 전체 본문의 생성에 대한 고려 없이 본문의 상호 관련성에 관한 단지 문학적이고 신학적인 연구의(본문과 독자 사이) 경향은 뚜렷이 구분된다.

#### (4) 다른 사본과의 비교

에스겔서는 또한 MT와 LXX의 비교를 통해,<sup>98)</sup> 그리고 P967과의 비교를 통해,<sup>99)</sup> 더 나아가 미드라쉬와의 비교를<sup>100)</sup> 통해서도 연구되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LXX 및 P967과의 비교이다. 일반적으로 번역특성상 LXX 본문이 MT의 본문보다 상대적으로 긴 것에 반해 LXX에 비해 오히려 상대적으로 긴 에스겔서의 MT 본문의(4-5%) 연구는 MT가

---

97) 요엘 및 스가랴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로는 B. Biberger, *Endg Itiges Heil innerhalb von Geschichte und Gegenwaert: Zukunftskonzeption in Ez 38-39, Joel 1-4 und Sach 12-14* (BBB 161; Göttingen: V & R Unipress, 2010)가, 학개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로는 R. Kasher, "Haggai and Ezekiel: The Complicated Relations between the Two Prophets", *VT* 59/4 (2009), 556-582가 있다.

98) Richard L. Goerwitz, "Long Hair or Short Hair in Ezekiel 44:20", *JAOS* 123/2 (Jun 2003), 371-376과 Jake Stromberg, "Observation on Inner-Scriptural Scribal Expansion in MT Ezekiel", *VT* 58/1 (2008), 68-87.

99) P. Schwagmeier, "Untersuchungen zu Textgeschichte und Entstehung des Ezechielbuches in masoretischer und grichischer Überlieferung", 그리고 I. A. Lilly, *Two Books of Ezekiel. Papyrus 967 and the Masoretic Text as Variant Literary Edition* (VtSup 150; Leiden/Boston, MA: Brill, 2012).

100) D. Arbel, "Questions about Eve's Iniquity, Beauty, and Fall: The 'Primal Figure' in Ezekiel 28:11-29 and Genesis Rabbah Traditions of Eve", *JBL* 124/4 (Winter 2005), 641-655. 아벨의 미드라쉬와의 비교 연구는 상징주의적 해석의 차원으로 넘어가서 독자적 차원의 읽기를 보여준다.



편집적 확장과 변경을 경험한 보다 후대의 것임을 본문 비교를 통해서 밝힌다.<sup>101)</sup> 특히 슈박마이어(P. Schwagmeier)는 맛소라 전승과 그리스어 전승 문서의 비교를 통하여 에스겔 36장의 일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LXX의 에스겔 본문이 혼합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짧은 그리스어 전승의 문서를 보다 오래된 문서로 인정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원에스겔서가 LXX에 놓이거나 또는 반대로 MT에 놓이지도 않는다. 슈박마이어의 책의 생성에 관한 연구는 P967으로부터 복원된 문서가 원에스겔서일 것이라 제시한다.<sup>102)</sup>

에스겔서와 다른 사본들과의 비교연구는 이상과 같이 책의 생성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편집비평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본문으로서의 에스겔서를 다룬다는 점에서 복합적인 연구의 지평 안에 서있다.

### 3) 본문과 그것의 세계: 문학적 통일성에 대한 전제와 수용으로부터

#### (1) 언어학적 접근: 신학적 주제의 산출을 위한 수사비평적 접근과 텍스트 언어학적 접근

이미 이른 시기에 역사비평적 연구에 대한 관심을 배재하고 본문의 문학적 통일성을 전제한 상태에서 수사학적 비평을 통한 본문의 총체적인 읽기가 탈몬(S. Talmon)과 피쉬바네(M. Fischbane)에 의해 이루어졌다.<sup>103)</sup> 이들은 수사비평적 접근을 통해 본문의 문학적 구성에 사용된 문학적 기교와 서술의 특징을 밝힘으로 본문의 의미에 접근하려 했

101) P. Schwagmeier, *윗글*, 368. 또한 참고하라. 이학재, “최근 에스겔 연구의 동향과 전망”, 『구약논집』5집(2009), 124.

102) P. Schwagmeier, *윗글*, 368.

103) S. Talmon and M. Fischbane, “The Structuring of Biblical Books: Studies in the Book of Ezekiel”, *Annual of the Swedish Theological Institute* 10 (1976), 129–157.

다.<sup>104)</sup> 이것은 본문을 넘어 재구성된 정황과 형성의 가정으로부터 해석을 시도하는 이전의 연구를 본문 안으로 다시 끌어들이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이것은 본문의 편집적 흔적을 인정하면서도 수사학적 방법의 사용을 통해 본문 내에서 신학적 메시지를 찾으려한 블록(D. I. Block 1997/98<sup>105)</sup>)의 연구에서 잘 드러난다. 수사학적 방법의 사용을 통해 신학적인 주제의 문제로 에스겔서에 접근하는 연구는 이후 박호용(1999<sup>106)</sup>), 스트롱(J. T. Strong 2000<sup>107)</sup>), 라우더빌레(D. Launderville 2004<sup>108)</sup>)의 연구에서도 보인다. 박호용은 에스겔 38-39장에서 야웨인 지공식의 수사학적 연구를 통해 야웨인식과 관련된 신학적 주제를 다룬다. 스트롱은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 임재에 관한 신학적 주제를 다루고 있다. 에스겔 1장 24절과 28절, 3장 12절의 하나님의 임재와, 에스겔 8-11장의 하나님의 떠나심과 40-43장의 하나님이 돌아오심에 대한 연구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이라는 수단으로 당신의 택한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해석학적 의미를 도출한다.<sup>109)</sup> 앞선 두 연구가 지엽적인 본문에 한정되었다면, 에스겔 1장의 마차 보좌환상의 수사학적 관찰로부터 시작한 라우더빌레의 연구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신학적 주

104) 이와 연관된 가장 최근의 한국 학자의 연구로는 Young Bok Park, "Restoration in the book of Ezekiel: A Text Linguistic Analysis of Ezekiel 33-39", Ph. D. Dissertation (Vrije Universiteit Amsterdam, 2013)이 있다. 박영복은 논문에서 언어적 분석을 방법론으로 사용해서 에스겔 33-39장의 문장구조와 번역, 담화구조, 신학적 담론을 공식적인 입장에서 매우 상세히 다루고 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33-39장의 앞 뒤 본문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는 것이다. 공식적 입장의 최종본문에 대한 언어 분석적 읽기가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 왜 33-39장만이 선택되었는지(이것은 편집비평적 연구의 결과물이 아닌가?), 그리고 그 공식성의 확장인 전체 에스겔서 내에서의 기능과 위치는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언급의 누락이 아쉽다.

105) Daniel I. Block, *The Book of Ezekiel: Chapters 1-24*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7); Daniel I. Block, *The Book of Ezekiel: Chapters 25-48*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8).

106) 박호용, 「야웨인지 공식: 에스겔 38-39장을 중심으로」, (서울: 성지출판사, 1999).

107) J. T. Strong, "God's Kabod: The Presence of Yahweh in The Book of Ezekiel", Margaret S. Odell & John T. Strong(ed), *The Book of Ezekiel: Theological and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0).

108) D. Launderville, "Ezekiel's Throne-Chariot Vision: Spritualizing the Model of Divine Royal Rule", *CBQ* 66/3 (Jul 2004), 361-377.

109) J. T. Strong, *룻길*, 94.

제의 결과물을 에스겔서 전체에 적용한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새로운 공동체의 삶이라는 해석학적 결론을 제시한다.<sup>110)</sup> 이상의 연구에 반해 렌츠(T. Renz 1999<sup>111)</sup>)의 연구는 독특하다. 문학적 분석과 수사학적 방법론을 자신의 연구에 사용함에도 불구하고<sup>112)</sup> 구조주의 접근, 정경비평, 수사비평이 본문의 최종형태에만 집중 한 나머지 의사소통을 위한 저자나 독자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를 동시에 지적한다. 그래서 렌츠는 “의사소통이론에 기초한 수사학적 접근”이라는 새로운 연구를 제안한다.<sup>113)</sup> 이러한 방법론의 특징은 저자 또는 편집자의 역할을 고려하면서도 본문의 기능을 정하는 것에 있어 독자의 역할에 무게를 두는 것이다. 그의 연구는 저자로부터 본문으로 이동된 연구의 중심을 다시 청자와 독자의 단계로까지 이동시킨다.<sup>114)</sup> 반면 조휘의 메시아 관점의 에스겔 읽기는 본문으로부터 독자로의 이동이 아니라 본문으로부터 저자로의 이동을 보여준다. 조휘(2002<sup>115)</sup>)는 텍스트 언어학적 접근을 통해 “나시”라는 개념으로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신학적 통일성을 획득하고, 또한 이것을 메시아적 관점의 에스겔서 읽기로 확장시킨다. 그에 따르면 “나시” 개념은 책 전반에 걸쳐 일관성을 가지고 나타나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통일성의 문제에 있어 그 동안 의심받아온 에스겔 40-48장 안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하며 등장한다.<sup>116)</sup> 즉 에스겔 34장, 37장과 44장, 45장, 48장에서의 “나시”의 사용은 신학적 통

110) D. Launderville, *윇글*, 377.

111) T. Renz, *The Rhetorical Function of the Book of Ezekiel* (VTSup, 76; Leiden: Brill, 1999).

112) Renz는 에스겔서의 수사학적 정교성을 인정한다(윇글, 249).

113) 조휘, “에스겔서 연구의 흐름과 최근 동향”, 『신학교 선교』7집 (2003), 102.

114) 이와 유사한 연구로는 Blenkinsopp의 연구를 들 수 있다(조셉 블렌킨소프, 『에스겔』(박문재 옮김), (서울: 한 국장로회출판사, 2002). 원제는 J. Blenkinsopp, *Ezekie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0)). Blenkinsopp은 “통독”이라는 방법을 사용한 총체적 읽기를 단락별 읽기를 위한 전제로 제안한다. 또한 본문의 의미를 밝히기 위한 본문의 구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단락의 구조로부터 전체의 구조로의 확장을 통한 예언서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에 집중한다(윇글, 24, 27).

115) H. Cho, “Ezekiel’s Use of the Term [nasi] with Reference to the Davidic Figure in His Restoration Oracles”, Ph. D. Dissertation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2002).

116) 윇글, 387.

일성을 가진 통일왕국과 성전 회복과 미래에 세워질 신앙 공동체의 통치자를 묘사하는 면에서 일관성 보여준다.<sup>117)</sup> 앞선 렌츠가 독자의 역할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 조휘는 저자의 관여와 통제아래 해석의 자리를 놓음을 통해 저자의 역할에 무게를 둔다. “나시”의 사용은 본문 구성에 있어 저자의 일관적인 의도를 반영하고, 이것은 “여호와와 왕권과 주권 아래의 메시아적인 상징”으로 또한 에스겔서 전체의 신학적 일관성을 형성한다.<sup>118)</sup>

## (2) 신문학 비평적 그리고 정경비평적 연구에 따른 본문의 총체적 읽기

그린베르그(M. Greenberg 1983<sup>119)</sup>)는 “복수의 저자”에 대한 각각의 판단 기준들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sup>120)</sup> 에스겔서 안에서 발견되는 잘못된 시대 배열, 구문상의 비일관성 그리고 불일치들은 비진정성의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유효한 기준이 아니라고 평가한다.<sup>121)</sup> 그는 한 주제 아래서 등장하는 서술자의 인칭과 수취인의 변경, 다양한 문체의 사용, 중복, 잘못된 참조 그리고 여러 번 반복되는 과거비판 부분 등은 문서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부차적인 요소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다양한 문체와 형태의 의도적인 모방을 통해서 생성되어진 통일적인 내용일 수도 있음을 주장한다. 이러한 상론을 토대로 그린베르그는 에스겔서가 편집적 개정을 근본적으로 경험하지 않았음을 견고히 주장한다.<sup>122)</sup> 결과적으로 에스겔서는 역사적 선지자 에스겔의 책으로 되돌려졌고,<sup>123)</sup> 총체적 읽기를 통해서만이 파악될 수 있는 문서가

117) 조휘. “에스겔 34장을 중심으로 본 에스겔의 ‘나시’연구”, 『구약논집』1집 (2005), 195.

118) H. Cho, 윗글, 387.

119) M. Greenberg, *Ezekiel 1-20*; M. Greenberg, *Ezekiel 21-37*.

120) M. Greenberg, “The design themes of Ezekiel’s program of restoration,” 208.

121) M. Greenberg, “What are valid criteria for determining inauthentic matter in Ezekiel?,” 123.

122) M. Greenberg, 윗글, 27을 참고하라.

123) 윗글, 27.

되었다.<sup>124)</sup> 그린베르그와 달리 최종편집을 고려하는 것으로부터의 총체적 읽기가 김상래(2004<sup>125)</sup>)에 의해 시도되었다. 그는 본문을 현재 형태로 읽는 것을 통해 에스겔서를 지금과 같이 만든 최종 편집본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거라 주장한다.<sup>126)</sup> 이것은 최종의 본문이 최종의 신학적 의도를 담지하고 있음에 대한 견해라 할 수 있다.<sup>127)</sup> 김상래는 에스겔 40-48장의 총체적 읽기를 통해 그곳에서 묘사되는 성전의 정체성을 최종본문의 첫 번째 독자의 자리로부터 그리고 그들의 신학적 인식으로부터 추론한다. 이 성전은 사람의 손에 의해 건설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건축을 위한 것이 아님에도 물리적으로 이 땅에 세워질 어떤 것이다. 성전이 세워질 때 세상은 에덴동산과 같이 변한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다. 그곳에 아웨는 임재 하신다. 이러한 관찰로부터 김상래는 “창조와 회복”의 신학적 의미를 본문으로부터 이끌어내고, 본문에서 묘사하는 성전이 “당시의 포로민들에게 그들의 포로된 상황을 반전시키는, 세상이 새로워지는 메시아의 시대에 아웨 하나님에 의해 지상에 건설될 이상적인 성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개연성을” 주장한다.<sup>128)</sup> 동일하게 에스겔 40-48장의 연구에

124) 권오현은 Childs와 Greengerg의 정경적 해석과 총체적 읽기의 수용으로부터 자신의 연구를 진행한다(권오현, 「에스겔의 예언과 신학 연구 1, 2, 3」 (서울: 한미음세계선교회출판부, 2007)). 이 연구는 3권의 단행본으로 나누어 출판되었다. 1권은 서론적 논의, 2권은 에스겔의 심판의 예언, 3권은 에스겔의 회복의 예언과 에스겔의 신학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다.

125) 김상래, “에스겔 40-48장에 나타난 ‘새 성전’의 정체성”, 『구약논단』 16집 (2004), 215-244. 편집을 인정하는 것 안에서의 총체적 읽기의 시도는 편집의 정도와 범위의 차이를 두고 또한 J. E. Wevers, H. Parunak, P. Joyce, I. M. Duguid, F. Sedlmeier 등의 연구에서도 보여진다.

126) 김상래, 윗글, 224.

127) 비교. 랄프 W. 클라인, 『에스겔: 예언자와 그의 메시지』 (박호용 옮김), (서울: 성지출판사, 1999), 15. 원제는 Ralph W. Klein, Ezekiel: The Prophet And His Message (Columbi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1988). Klein에 따르면 “예언자의 메시지는 예언자의 전기에서가 아니라 표준 본문 속에서 발견되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예언자의 개인적 환경 혹은 그의 심리적 투쟁에 대한 탐구는 그를 해석하는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예언서를 읽는 방식은 예언자 자신, 그의 추종자들, 그리고 신앙공동체가 본문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재형성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어야만 한다.”

128) 김상래, 윗글, 223.

서 총체적 읽기를 시도한 닐슨(K. Nielsen 2008<sup>129</sup>)은 에스겔 1장과의 확장된 연결읽기를 시도한다. 이것을 통해 1장의 복합성과 가변성의 신호는 40-48장은 질서와 안정성의 신호와 서로 연결되고, 이러한 관점으로로부터 야웨를 포로지의 상황을 변화시킬 능력의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신학적 해석을 도출한다.

이상의 총체적 읽기의 시도는 단순히 본문을 전체로 읽으려는 시도가 아니라 에스겔의 예언과 신학을 에스겔서의 전체 문학적 구조와 신학 그리고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연관 하에서 해석하는 것을 통해 에스겔의 예언을 듣는 원래의 청중에게 본문이 어떠한 예언의 메시지를 증거하였는지를 연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sup>130</sup> 그 가치가 인정된다.

원 청중에 대한 이해를 근본으로 하는 총체적 읽기의 시도 외에 또한 동일한 전제로부터 현재의 청중의 고려와 본문의 신학적 영향을 고려하는 연구가 있다. 이종록(1996<sup>131</sup>)/2003<sup>132</sup>)은 문학구조와 내용구조의 파악을 통한 자신의 연구에서 하나님의 용서에 의해서 촉발되는 인간의 회개사상을 보여주는 문학구조의 존재를 규명한다. 이를 위해 에스겔 16장 59-63절, 20장 40-44절, 36장 29-32절, 39장 25-29절의 문학 및 내용구조에 대해 논하고 이를 통해 용서에서 회개로 이뤄지는 용서와 회개의 문학양식과 신학구조를 밝혀낸다. 그러므로 에스겔서의 상기 본문들은 ‘결과로서의 회개,’ 즉 용서(구원) 이후에 나타나는 회개를 강조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을 통해 또한 회개를 촉발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용서’로 규정할 수 있게 되었다. 박영복(2013<sup>133</sup>)은 에

129) Kirsten Nielsen, "Ezekiel's Visionary Call as Prologue: From Complexity and Changeability to Order and Stability?" JSOT, 33/1 (2008), 99-114.

130) 권오현, 「에스겔의 예언과 신학 연구 1」, 155.

131) 이종록,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용서 - 회개의 신학과 문학구조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1996).

132) 이종록,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용서 회개]의 신학과 문학구조에 대한 연구」, 「구약논단」 14/1 (2003): 67-104.

133) 박영복, 「에스겔 37장 7절에 나타난 인칭의 불일치 해석: 본문-언어학적 분석」, 「교회와 문화」 31집 (2013).

스겔 37장 7절에 나타난 인칭의 불일치에 대한 순수한 본문-언어학적 분석 연구를 통해 본문의 독특성에 보다 가까운 번역과 해석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히브리어 본문에 나타난 여러 가지 독특성을 보다 존중하고 의존하는 번역과 해석을 지향한다.<sup>134)</sup> 왜냐하면 “이전의 주석학적인 견해들이 맞소라 본문의 독특성을 본문 자체에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외부적인 연구 결과물들을 바탕으로... 해석을 제안”함으로써 오히려 현재의 독자들의 이해에 있어 방해가 발생시켰기 때문이다.<sup>135)</sup>

#### 4) 독자와 그들의 세계

본문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 편집자의 역할을 고려하면서도 독자의 역할에 무게 중심을 두는 렌츠의 연구경향은 이미 소개되었다. 독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은 독자반응비평과 청중중심 비평적 연구들 속에서 발견된다.<sup>136)</sup> 이러한 비평과 맥을 같이 하여, 정중호(2002<sup>137)</sup>)가 스스로 명명한 가상참여자 반응 비평이 눈에 띈다. 정중호는 그의 논문에서 가상현실 기법을 성경에 어느 정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면서 가상현실 기법을 활용한 창의적인 성경해석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에 관해 논한다.<sup>138)</sup> 그는 이 방법을 통해 성경 해석을 문자로부터 벗어나게 만들고, 해석하는 독자의 중요성으로부터 독자의 창의적 상상력 곧 독자가 활용하는 가상현실에 발전적인 해석학적 열쇠가 있음을 주장한다. 독자반응비평과 청중중심비평이 기록된 텍스트의 독서 또는

---

123-141.

134) 윗글, 139.

135) 윗글, 138.

136) 물론 이와 관련하여 알레고리적 해석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 가장 최근의 연구로는 알레고리적 해석의 공헌가 한계를 오리겐의 에스겔 16장의 해석을 중심으로 연구한 김동혁, “에스겔 비유의 알레고리적 해석 연습: 오리겐의 에스겔 16장 해석을 중심으로”, 『C & C』 8권 1호 (2014년 봄), 31-50의 연구가 있다.

137) 정중호, “가상현실 기법을 활용한 성서 해석 방법론의 관한 연구: 에스겔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13/3 (2002), 7-33.

138) 윗글, 9.

독음시 독자나 청중이 인식하는 새로운 텍스트의 생성을 고려하는 것의 수용으로부터 가상참여자가 가상현실의 참여를 통해 생성하게 되는 제3의 텍스트를 또한 고려한다. 곧 텍스트는 가상성경으로 그리고 중국에는 가상참여자 성경으로 발전된다.<sup>139)</sup> 이렇듯 독자 중심의 가상참여자 비평은 오감 모두를 활용한 해석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가상현실 가운데 직접 참여하여 개인적이며 직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으며 능동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성경 속의 인물 뿐 아니라 사물과도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된다는 측면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담지함과 더불어 성경을 “열린 텍스트”가 되게 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sup>140)</sup> 반면에 정중호 스스로도 언급하듯이 가상현실의 사용은 가상현실이라는 공간 자체가 이미 해석된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또한 가상현실의 제작자의 상상력과 기술에 따라 가상현실 참여자의 상상력이 제약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이다. 어떠한 정중호의 이러한 연구는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교회에 그리고 이미 가상현실을 사용한 독서를 시도하고 있는 세상의 기술의 발전에 이른 방향제시를 통해 교회가 다음 세대의 성경교육을 위해 어떻게 발 빠른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를 제시 하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된다.

#### 4. 결론: 요약과 앞으로의 연구에 대한 전망

이상에서 침멀리 이후로부터 최근의 에스겔서 연구의 동향은 저자중심의 경향, 저자와 본문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향, 본문중심의 경향, 본문과 독자를 동시에 고려하는 경향, 그리고 독자중심의 경향으로 이동하는 순으로 언급되었다. 그러나 각 연구 경향들의 이러한 순차적인 이

---

139) 윗글, 29.

140) 윗글, 32.



동은 연구 동향의 카테고리별 언급과 인위적인 배열을 통해 형성된 것이고 실제 연구의 상황은 각자의 연구 입장과 방법에 따라 동시대적이고 또한 더욱 상호 혼합적이다.

벨하우젠의 가설이후 그것의 근본적인 수용으로부터 시작된 에스겔서의 통일성에 대한 의심은 본문의 구조적, 언어적인 이질성의 부각으로부터 확대되어 본문의 전체 구조와 연대 및 저작의 문제에 대한 비평적 견해들을 쏟아내었다. 선지자적 본문의 추구는 자료비평적 연구로부터 양식비평을 거쳐 전승사비평으로 또한 더 나아가 문서이전 단계의 고려에 대한 구전비평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결국 현재의 본문에 대한 파편화를 발생시켰다. 그리고 본래 형태의 신탁을 현재의 본문으로부터 분리해 내어 연구하는 것에 따른 본문의 파편화가 에스겔서 이해에 오히려 방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반성으로부터 에스겔서의 원래의 구전 또는 기록 신탁을 후대의 삽입과 나누어 분리하려는 시도는 편집비평적 연구의 경향아래서 최종 형태 본문의 형성의 시기와 기간, 그리고 원리와 방법을 설명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즉 원문서를 찾는 것에 집중했던 이전시대의 연구는 후대 삽입과 확장에 대한 새로운 평가로부터 최종형태의 본문에 대한 관심으로 획기적인 전환을 맞게 된 것이다. 책의 생성에 대한 여전한 고려로부터 최종형태의 본문에 관심을 둔 연구는 구약 내의 다른 본문들과의 상호 관계성 연구와 다른 사본 또는 더 넓게는 당시 고대근동의 문화와 역사적 배경과의 연결을 통해 본문의 생성과 그것의 신학적 의미를 파악하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로부터 기인한 신탁과 후대 삽입 부분의 정확한 구분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그리고 현재 우리 앞에 놓인 최종 형태의 본문에 대한 해석학적 불능상태로부터, 예언서의 자료 배열의 연속성을 찾으려다 예언서의 진정한 속성과 구조를 상실한 것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이전의 통시적인 연구는 공시적인 연구의 방법으로 일대 전환을 맞았다. 최종형태의 본문으로부터 수사학적 방법이

나 정경비평적 방법 그리고 총체적 읽기의 제안 등은 해석학의 문제에 있어 신학적인 주제의 문제로 에스겔서에 접근하는 통합적인 길을 열었다. 그리고 통시적이고 공시적인 연구방법론의 통합적 사용이 또한 등장했다. 통시적 연구의 최종 단계로써의 공시적 연구에 대한 접근이든, 아니면 반대로 공시적 연구의 확인을 위한 통시적 연구의 활용이든 간에, 이 두 방법의 혼합적 사용은 두 연구 방법의 활용의 정도와 주도적인 방법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에 따라 상당히 다른 연구의 경향들의 드러나기는 하지만 현재의 연구에 있어 두드러진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최근의 예언서 연구 동향을 한 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어렵지만, 저자 단계로부터 본문단계로 옮겨진 것 속에서 연구의 중심은 그 둘 사이를 진자 운동 하고 있으며, 이 운동이 확장되어 독자단계로의 진행을 모색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크래츠슈마르의 비평적 연구가 시작된 이래로 에스겔서의 통일성의 주장은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결국 그곳으로 회귀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에스겔서 연구는 한동안 전체로서의 본문 읽기를 전제하는 것 안에서 통시적 연구의 방법론들과 대화를 시도하는 경향을 유지할 것이다. 또한 본문에 대한 공시성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 대한 총체적 읽기의 시도와 선지서 내에서의 정경비평적 입장에서의 총체적 읽기의 시도가 더 활발히 진행될 것이다.

## 5. 참고문헌

권오현, 「에스겔의 예언과 신학 연구: 서론적 논의 1」 (서울: 한마음세계선교회출판부, 2007).

\_\_\_\_\_, 「에스겔의 예언과 신학 연구: 에스겔의 심판의 예언 2」 (서울: 한마음세계선교회출판부, 2007).

- \_\_\_\_\_, 「에스겔의 예언과 신학 연구: 에스겔의 회복의 예언과 에스겔의 신학 3」(서울: 한마음세계선교회출판부, 2007).
- 김동혁, “에스겔 비유의 알레고리적 해석 연습: 오리게네스의 에스겔 16장 해석을 중심으로”, 「C & C」8권 1호 (2014년 봄), 31-50.
- 김상래, “에스겔 40-48장에 나타난 ‘새 성전’의 정체성”, 「구약논단」16집 (2004), 215-244.
- 박영복, “에스겔 37장 7절에 나타난 인칭의 불일치 해석: 본문-언어학적 분석”, 「교회와 문화」31집 (2013), 123-141.
- 박호용, 「아웨인지 공식: 에스겔 38-39장을 중심으로」(서울: 성지출판사, 1999).
- 송계근, 「시내산 언약과 모압언약: 출애굽기 19-24장과 신명기 5-28장 연구」(서울: 솔로몬, 1992).
- 이중록,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용서 회개]의 신학과 문학기초에 대한 연구”, 「구약논단」14권 1호 (2003): 67-104.
- \_\_\_\_\_,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용서 → 회개의 신학과 문학기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1996).
- 이학재, “예레미야 31:31-34과 에스겔 36:24-28의 상호 본문성”, 「개신논집」5집 (2005), 49-69.
- \_\_\_\_\_, “최근 에스겔 연구의 동향과 전망”, 「구약논집」5집 (2009), 124.
- 임시영, “에스겔 47:13-48:29의 문학적 통일성으로 본 형성사 연구”, 「C & C」7권 1호 (2013 봄), 155-190.
- \_\_\_\_\_, “에스겔서 종결부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회복의 희망: 에스겔 47장 13절 48장 29절의 신학적인 함의”, 「구약논단」18권 2호 (2012), 58-85.
- 정중호, “가상현실 기법을 활용한 성서 해석 방법론의 관한 연구: 에스겔을 중심으로”, 「구약논단」13/3 (2002), 7-33.

- 조휘, “에스겔 34장을 중심으로 본 에스겔의 ‘나시’연구”, 『구약논집』1집 (2005), 163-198.
- \_\_\_\_\_, “에스겔서 연구의 흐름과 최근 동향”, 『신학교 선교』7집 (2003), 82-107.
- 조셉 블렌킨소프, 『에스겔』 (박문재 옮김), (서울: 한국장로회출판사, 2002). 원제 Blenkinsopp, J., *Ezekie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0).
- 랄프 W. 클라인, 『에스겔: 예언자와 그의 메시지』 (박호용 옮김), (서울: 성지출판사, 1999). 원제 Klein, Ralph W., *Ezekiel: The Prophet And His Message* (Columbi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1988).
- Allen, Leslie C., *Ezekiel 20-48* (WBC 29; Dallas, TX: Word Books, 1990).
- Arbel, D., “Questions about Eve’s Iniquity, Beauty, and Fall: The ‘Primal Figure’ in Ezekiel 28:11-29 and Genesis Rabbah Traditions of Eve”, *JBL* 124/4 (Winter 2005), 641-655.
- Baltzer, D., *Ezekiel und Deuterocesaja: Berührung in der Heilserwartung der beiden grossen Exilspropheten* (Berlin: Walter de Gruyter, 1971).
- Bertholet, A./Galling, K., *Hesekiel* (HAT 1/13; Tübingen: Mohr, 1936).
- Betts, T. J., *Ezekiel the Priest: A Custodian of Tora* (New York: Peter Lang 2005).
- Biberger, B., *Endgültiges Heil innerhalb von Geschichte und Gegenwart: Zukunftskonzeption in Ezk 38-39, Joel 1-4 und Sach 12-14* (BBB 161; Göttingen: V & R Unipress, 2010).
- Blenkinsopp, J., *Ezekiel* (IBC;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0).
- Block, Daniel I., *The Book of Ezekiel: Chapters 1-24* (Grand Rapids:

-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7).
- \_\_\_\_\_, *The Book of Ezekiel: Chapters 25-48*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8).
- Cho, H., “Ezekiel’s Use of the Term [nasi] with Reference to the Davidic Figure in His Restoration Oracles”, Ph. D. Dissertation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2002).
- Clements, R. E., *Old Testament Prophecy: From Oracle to Can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6).
- Cooke, G. A.,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Ezekiel* (ICC 26; Edinburgh: Clark, 1960).
- Corrine L. Patton, “Ezekiel’s Blueprint for the Temple of Jerusalem”, Ph. D. Dissertation (Yale University, 1991).
- Duguid, I. M., *Ezekiel*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9).
- \_\_\_\_\_, *Ezekiel and the Leaders of Israel* (VTSup. 56; E. J. Brill: Leiden, 1994).
- Eakin, J. K., “Ezekiel Influence on the Exile Isaiah”, Ph. D. Dissertation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1970).
- Ebach, J. H., “Kritik und Utopie: Untersuchung zum Verhältnis von Volk und Herrscher im Verfassungsentwurf des Ezechieel (Kap. 40-48)”, D. theol. Dissertation (Hamburg Universität, 1972).
- Eichrodt, W., *Der Prophet Hesekiel. Kapitel 1-18* (ATD 22/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55, 5., unv. Aufl., 1986).
- \_\_\_\_\_, *Der Prophet Hesekiel. Kapitel 19-48* (ATD 22/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55, 3., unv. Aufl., 1984).
- Fohrer, G., “Über den Kurzvers”, ZAW 66 (1954), 199-236.
- Fohrer, G./Galling, K., *Ezekiel* (HAT 1/13; Tübingen: Mohr, 1955).

- Gese, H., *Der Verfassungsentwurf des Ezechiel(Kap,40-48): Traditionsgeschichtlich Untersucht* (Tübingen: J. C. B. Mohr, 1957).
- Goerwitz, Richard L., “Long Hair or Short Hair in Ezekiel 44:20”, *JAOS* 123/2 (Jun 2003), 371-376.
- Greenberg, M., “The design themes of Ezekiel’s program of restoration”, *Int* 38 (1984), 181-208.
- \_\_\_\_\_, “What are valid criteria for determining inauthentic matter in Ezekiel?”, J. Lust(Hgg.), *Ezekiel and his book: Textual and literary criticism and their interrelation* (BETHL 74; Leuven: Univ. Pr. [u.a.], 1986).
- \_\_\_\_\_, *Ezekiel 1-20: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ncB 22; Garden City/New York: Doubleday, 1983).
- \_\_\_\_\_, *Ezekiel 21-37: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ncB 22a; Garden City/New York: Doubleday, 1983).
- Haran, M., “Ezekiel, P, and the Priestly School”, *VT* 58/2 (2008), 211-218.
- \_\_\_\_\_, “The law code of Ezekiel 40-48 and its relation to the Priestly school”, *HUCA* 50 (1979), 45-71.
- Heinisch, P., *Das Buch Ezechiel* (HSAT 8/1; Bonn: Hanstein, 1923).
- Hempel, J., *Die althebäische Literatur und ihr hellenistisch-jüdisches Nachleben* (Wildpark-Potsdam: Akad. Verlagsges. Athenaion, 1930).
- Herrmann, J., *Ezechiel* (KAT 11; Leipzig: Deichert, 1924).
- \_\_\_\_\_, *Ezechielstudien* (BWAT 2; Leipzig: Hinrichs, 1908).
- Holladay, W. L., “Had Ezekiel Known Jeremiah Personally?”, *CBQ* 63/1 (2001), 31-34.
- Hölscher, G., *Hesekeiel, Der Dichter und das Buch: Eine literarkritische Untersuchung* (BZAW 39; Gießen: Töpelmann, 1924).

- Idestrom, R. G. S., "Echoes of the Book of Exodus in Ezekiel", *JSOT* 33/4 (2009), 489-510.
- Joyce, P. M., *Divine Initiative and Human Response in Ezekiel* (JSOTSup. 51; Sheffield: JSOT, 1989).
- \_\_\_\_\_, *Ezekiel: A Commentary* (OTS 482; London: T & T Clark, 2008).
- Kasher, R., "Haggai and Ezekiel: The Complicated Relations between the Two Prophets", *VT* 59/4 (2009), 556-582.
- Konkel, M., *Architektonik des Heiligen. Studien zur zweiten Templevision Ezechiels(Ez 40-48)* (BBB 129; Berlin: Philo, 2001).
- Kraetzschmar, R., *Das Buch Ezechiel* (HAT 3/3,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00).
- Krüger, T., *Geschichtskonzepte im Ezechielbuch* (BZAW 180; Berlin: de Gruyter, 1989).
- Kuhl, C., "Zur Geschichte der Hesekiel-Forschung", *ThR NF* 5 (1933), 92-118.
- Lang, B., *Ezechiel: Der Prophet und das Buch* (EdF 153;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81).
- Launderville, D., "Ezekiel's Throne-Chariot Vision: Spritualizing the Model of Divine Royal Rule", *CBQ* 66/3 (Jul 2004), 361-377.
- Leem, Si-Young, "Die Vision von neuen Israel: Literarische Struktur, Kompositionsgeschichte und theologische Bedeutung von Ez 47f.", *Dr. Theol. Dissertation* (Heidelberg Univ., 2010).
- Levin, Ch., *Die Verheißung des neuen Bundes: in ihrem theologiegeschichtlichen Zusammenhang ausgelegt* (FRLANT 137;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5).
- Lilly, I. A., *Two Books of Ezekiel. Papyrus 967 and the Masoretic Text as*

- Variant Literary Edition* (VtSup 150; Leiden/Boston, MA: Brill, 2012).
- McKeating, H., *Ezekiel*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 Natan, P. D., "The Prophetic Objection in Ezekiel in IV 14 and Its Relation to Ezekiel's Call", VT 55/1 (2005), 75-88.
- Nielsen, Kirsten, "Ezekiel's Visionary Call as Prologue: From Complexity and Changeability to Order and Stability?", JSOT 33/1 (2008), 99-114.
- Oeming, M., *Biblische Hermeneutik* (Darmsadt: WBG, 2007).
- Park, Young Bok, "Restoration in the book of Ezekiel: A Text Linguistic Analysis of Ezekiel 33-39," Ph. D. Dissertation (Vrije Universiteit Amsterdam, 2013).
- Pohlmann, K.-F., *Das Buch des Propheten Hesekeiel(Ezechieel). Kapitel 1-19* (ATD 22/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6).
- \_\_\_\_\_, *Die Ferne Gottes - Studien zum Jeremiabuch: Beiträge zu den Konfessionen "im Jeremiabuch und ein Versuch zur Frage nach den Anfängen der Jeremiatradition* (BZAW 179; Berlin/New York: de Gruyter, 1989).
- \_\_\_\_\_, *Ezechielestudien: Zur Redaktionsgeschichte des Buches und zur Frage nach den ältesten Texten* (BZAW 202; Berlin/New York: de Gruyter, 1992).
- \_\_\_\_\_, *Das Buch des Propheten Hesekeiel(Ezechieel) Kapitel 20-48*. Mit einem Beitrag von T. A. Rudnig (ATD 22/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1).
- Renz, T., *The Rhetorical Function of the Book of Ezekiel* (VTSup. 76; Leiden: Brill, 1999).
- Rudnig, T. A., *Heilig und Profan: Redaktionskritische Studien zu Ez 40-48*



- (BZAW 287; Berlin: de Gruyter, 2000).
- Saur, M., *Der Tyrozyklus des Ezechielbuches* (BZAW 386; Berlin: W. de Gruyter, 2008).
- Schwagmeier, P., “Untersuchungen zu Textgeschichte und Entstehung des Ezechielbuches in masoretischer und griechischer Überlieferung”, Dr. Theol. Disserrtation (Uni. Zürich, 2004).
- Sedlmeier, F., *Das Buch Ezechiel. Kapitel 25-48* (NSKAT 21/2; Stuttgart: Katholisches Bibelwerk, 2013).
- Sprinkle, P., “Law and Life: Leviticus 18,5 in the Literary Framework of Ezekiel”, *JSTOT* 31/3 (2007), 275-293.
- Strine, C. A., *Sworn Enemies. The Divine Oath, the Book of Ezekiel, and the Polemics of Ezekiel* (BZAW 436; Berlin/New York, NY: Walter de Gruyter 2013).
- Stromberg, Jake, “Observation on Inner-Scriptural Scribal Expansion in MT Ezekiel”, *VT* 58/1 (2008), 68-87.
- Strong, J. T., “God’s Kabod: The Presence of Yahweh in The Book of Ezekiel”, Margaret S. Odell & John T. Strong(ed), *The Book of Ezekiel: Theological and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0).
- Talmon, S. and Fischbane, M., “The Structuring of Biblical Books: Studies in the Book of Ezekiel”, *Annual of the Swedish Theological Institute* 10 (1976), 129-157.
- Tuell, Steven Shawn, *The Law of the Temple in Ezekiel 40-48* (HSM 49; Atlanta: Scholars Press, 1992).
- Vogt, E., *Untersuchungen zum Buch Ezechiel* (AnBid 95; Rome: Bilical Inst. Pr., 1981).
- Wevers, J. E., *Ezekiel* (Grand Rapids: Eerdmans, 1969).

- Zimmerli, W., "The Special Form- and Traditio-Historical Character of Ezekiel's Prophecy", VT 15 (1965), 515-527.
- \_\_\_\_\_, Art. Ezechiel/Ezechielbuch, TRE 10 (1982), 766-781.
- \_\_\_\_\_, *Ezechiel, Teilbad. 1: Ezechiel 1-24* (BK 13/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69, 2., verb., durch e. neues Vorw. u. e. Literaturnachtr. erw. Aufl., 1979).
- \_\_\_\_\_, *Ezechiel, Teilbad. 2: Ezechiel 25-48* (BK 13/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69, 2., verb., durch e. neues Vorw. u. e. Literaturnachtr. erw. Aufl., 1979).
- Zunz, L., *Die gottesdienstlichen Vorträge der Juden, historisch entwickelt: Ein Beitrag zur Altertumskunde und biblischen Kritik, zur Literatur- und Religionsgeschichte* (Hildesheim: Olms, 1966).

## 검색어

에스겔 연구사  
 양식비평  
 편집비평  
 총체적 읽기  
 만프레드 외밍

The history of researches on Ezekiel  
in light of significant stems of development and in a recent trend of  
Study

Si-Young Leem  
Lecturer at Sungkyul University  
Heidelberg University Th. D.

Since 1900, introduction of study of historically elapsed time and its retroactive studies critical study on Ezekiel is having hardship due to inconsistent studies or mutually various fused situations. This study in this sight first presents each criticism's development condensedly and across-the-board based on German studies of fundamental knowledge of historical criticism related to Ezekiel's basic documentation and its formation or editing. However, at the same time, it is purposed, by arranging core studies' outputs more deeply, to approach easier and more comprehensive than one brought up from criticized questions as a matter of Ezekiel study. To follow, each tendency of radical study from historical process and its expansion and reaction followed by beginning of literature criticism to data criticism and redaction criticism after 1900 is first likely to be pursued. This is also a prior work process to help looking after each and different Ezekiel studies' methodological roots and its following relationship after 1990. Following recent studies are categorized and evaluated in a way of each study's methodology's characteristics. For this process, schematic sorting according to today's annotation methodology in a view of analytics suggested by Manfred Oeming is admitted. Hence, today's Ezekiel study's each tendencies

www.kci.go.kr

are evaluated and classified in a routine of ‘authors and their world’, ‘documents and their world’, ‘recipients/readers and their world’ and ‘real incidents and their world’. Finally, this dissertation is concluded to prospect study of Ezekiel. From now on, Ezekiel’s study wraps up to the fact that it is desirable to be progressed in a way of diachronic study’s acceptance and application based on synchronic study.

### **Keywords**

History of researches on Ezekiel  
form criticism  
redaction criticism  
holistic Reading  
Manferd Oeming

- 투고일: 2014년 7월 01일
- 심사일: 2014년 7월 28일
- 게재 확정일: 2014년 8월 06일